

국문 73-1-131

17/100

北韓의 統一戰略을 勘案한
收斂理論의 韓半島 適用方案

국문용
(국문과)

1973. 11.

國土統一院

국통 73-1-131

北韓의 統一戰略을 勘案한
收斂理論의 韓半島 適用方案

1973. 11.

提 出 文

國土統一院長官 貴下

이 報告書를 『北韓의 統一戰略을 勘案한
收斂理論의 韓半島 適用方案』의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20

研究機關名: 東國大學校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閔 炳 旽

目 次

一. 序 論	1
二. 収斂의 理論과 展望	5
가. 収斂理論의 理論的 基盤	7
나. 収斂理論에 對한 共產圈의 反應	14
다. 収斂理論의 將來	16
三. 南北韓統一戰略과 収斂可能性	19
가. 統一原則과 民族主義	21
나. 統一論議와 「이데올로기」	24
다. 統一論議와 戰略比較	28
라. 統一方法과 北韓의 戰術	33
마. 統一戰略과 収斂可能性	43
四. 南北韓體制와 収斂可能性	47
가. 政治體制와 民族主義	49
나. 南北韓體制와 「이데올로기」性	52
다. 南北韓體制와 能力比較	56
라. 南北韓體制와 収斂可能性	63
五. 結論 (収斂方式에 의한 統一方案)	67
가. 統一基盤造成으로서의 収斂理論	69
나. 「위로부터」의 統一方法	72
다. 「밑으로 부터」의 統一方法	75

一. 序 論

一. 序 論

統一을 論함에 있어 統一의 基本的 準拠를 「民族統一」이라는 觀點에서 출발하여 領土的觀念의 國土統一을 包容하여야 한다. 그것은 南北이 다같이 民族統合의 要素를 너무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며 民族國家保存이라는 始源的인 本質을 常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民族은 民族史的 文化的 產物이며 政治的 分裂現狀을 統合의 論理로 接近시키는 데는 實踐的 主体가 바로 民族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民族의 問題를 論議함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性格과 具體的 실천적 性格을 가지고 史的으로 行動을 表示하는 民族主義原理가 「民族統一」의 基本行動指標로 設定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民族主義는 民族史에 있어서 지금까지 「民族國家保存」이라는 民族本能的 문제와 分裂의 政治史를 統合의 民族史로 만들어야 한다는 「民族國家形成」의 民族的 실현의 欲求를 다같이 充足시켜 주고 있는 行動原理인 것이다. 물론 分裂의 형태나 統合의 形態가 諸類型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어떠한 形態이든 항상 民族主義가 始源的으로 登場해 왔던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성을 內包한 民族分裂・國土分斷이기 때문에 이러한 理念的 分裂을 超克하고 包越하는 힘도 民族主義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民族主義를 「民族國家保存」과 「民族國家形成」이라는 形式論理的 차원과 實質的 차원에 다같이 接木시켜 現狀分析과 原理문제를 해결하는 方式을 취하기로 하였다.

물론 既存收斂理論은 民族統一의 肯定的 측면으로 보아 大原則인 「民族國家保存」이라는 民族生存의 本質的 차원에는 適用하지 않았고 다만 民族國家形成을 위한 基盤으로서 統一接近의 方式으로 適用시켜 보았다. 그것은 收斂理論이 産業社會를 基盤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分斷國家에서는 「共存」이라는 개념의 前提가 成立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더우기 「民族統一」을 위해서는 戰爭이나 緊張의 競爭을 포기해야 한다는 民族的 欲求가 있는限 民族統一은 體制否認이나 吸收方式에 의한 統一論이어서는 안되므로 脫國際性에 立脚한 民族國家의 主體로서의 民族을 「統合의 틀」로 설정하여 國際환경적 要因은 이를 保障하는 方向으로 展開方式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統一의 大原則을 「위로 부터」의 統一方式으로 表示했고, 이 大原則에 立脚하여 「밑으로 부터」의 統一方式이라는 民族國家형성을 위한 「7.4 聲明」정신을 小原則으로 삼아 變증법적 統一方式을 提示하였다. 이에 前者는 比較적 形式論理的이요, 後者는 實踐論理的, 戰略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南北韓의 統一戰略을 比較하며, 그리고 兩體制간의 體制對立과 生存能力을 比較하여 收斂可能性을 提示하고 결론적으로 收斂理論에 의한 統一方式의 可能性을 提示해 보기로 하겠다.

二. 收斂의 理論과 展望

가. 收斂理論의 理論的 基盤

世界文明의 時潮를 分裂에서 統一에로 흐르고 있다고 볼때, 世界의 國家群이 各其 理念과 體制는 다르지만 高度의 産業社會로 發展해가는 過程에서 相互 충돌이나 破局을 避하고 平和共存하기 爲해 國際協助를 積極化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協助의 積極化 경향은 一九世紀의 遺産인 「國民國家의 理想」이 世界人의 뇌리에서 점차 흐려져 갈때 그 tempo를 더 빨리하게 될것도 自明한 일이다. 그렇다면 高度化 産業社會에로의 過程에서 人間이 政治的인 國家 目的보다 平和속의 人類 福祉를 더 重要視하게 될때 從來의 政治理念은 修正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體制 形成이 시도되지 않을 것인가도 斷定하지는 못한다.

이미 一次大戰後부터 國際協助의 무드는 크게 일었었지만 二次大戰後 冷戰體制를 초극하고 平和共存을 유지하기 爲한 國際協助의 경향은 더욱 高潮되었었다. 이 共存과 協助의 무드 속에서 兩次大戰後의 人間의 心理 變化는 人類福祉를 願하게 되었는바, 高度의 産業社會를 向해가는 두 體制는 어떠한 收斂過程을 겪어 單一化된 産業社會를 낳을 것인가 라는 假說을 研究한것이 바로 收斂理論인 것이다.

Convergence, Konvergenz 라는 概念의 語源을 보면 라틴어 Convergere로서 //무엇에 기울어지다. 접근하다. 한 점에 모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用語는 원래 自然科學分野에서 使用하던 것이고, 幾何學에서 두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生物學에 있어서 生體 或은 比較的 類似한 環境의 適応으로 因하여

생기는 各器官의 機能이 類似性을 갖는 경우, 医学에서 두눈의 注視線이 눈앞의 한 점으로 集中하는 경우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概念이 社会現象의 어느 特殊한 樣相을 說明하기 위해 社会科学에서 特히 經濟學者들과 社会學者들에 의해서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理論을 한마디로 말하면, 現代의 두개의 社会經濟的體制 즉 資本主義體制와 社会主義體制사이에는 相互接近의 現象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으로서, 두 體制는 現在 同一한 技術的, 社会的, 經濟的 課題를 안고 있고, 그것의 解決過程으로서의 未來의 發展方向은 반드시 비슷한 軌道에 오르리라는 結論인 것이다.

이러한 同 理論이 提示하는 中核은, 첫째 工業化 過程에서는 體制差異에 關係없이 生産 手段의 技術과 管理層이 脫 「이메올로지」 경향에 서게되고, 둘째 經濟活動의 効率化를 爲해서 閉鎖社会도 그 開放이 不可避하다는 것이며, 세계 異質體制間의 交流에서 優秀體制에로 人心의 變化가 기운다는 것으로서 現代의 代表的인 資本主義와 社会主義라는 이 두개의 社会制度가 어느 程度의 長時日의 持續的인 接近過程을 통하여 結局은 이른바 “單一的이며 現代的인 産業社会”가 出現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未來의 社会形成(構造概念)의 特徵으로서의 産業社会 概念과 産業社会時代(時代概念)라는 現代의 歷史的 時代概念이 收斂理論의 가장 重要한 成立要因이 되고있다.

이와같이 同 理論은 어디까지나 高度化된 産業社会를 前提로 한 것으로서, 産業社会的인 概念이 그 초기 단계이고, 基盤이 되며, 이 基盤위에서 收斂理論이 전개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收斂理論의 漸行的인 面뿐만이 아니라, 그의 發生條件과 社会的 機能의 把握을

위해서는 産業社会에 对한 理解가 그 前提가 될 수 밖에 없다.

現代産業社会라는 発想은 50年代 中半期에서 일어나기 始作하여 継続的인 發展을 보게된 것으로서 始初에는 대단히 一般的인 模糊한 資本主義社会의 未来像이었으며 現代의 大企業 問題, 人口膨脹, 大衆伝達方法, 大衆消費등과 같은것이 그 対象이었다. 이와같은 科学・技術革命이 提起한 새로운 問題들을 産業社会的 思考로서 解明을 해보자는 것이다.

産業社会 理論의 最初의 歴史哲學的이며 社会學的인 接近은 Hans Freyer의 西洋世界史와 Arnold Gehlen의 "産業的 社会에서의 社会心理學的인 問題"라는 著書에서 비롯되어 Hans Freyer의 現代論, Arnold Gehlen의 技術時代의 靈魂"에서 이러한 接近이 試圖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책들에서 볼 수 있는 現代産業社会의 社会學的인 定義의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人間의 疎外, 官僚制度化 혹은 道具化 그리고 産業社会의 支配的慾求로서의 計劃樂觀主義와 消費慾求등이 그것이다. 또한 技術에 依하여 支配받는 産業經濟的인 壓力의 存在가 있으며 人間은 거기에 隸屬되고, 그것은 어떠한 社会秩序의 社会經濟的인 構造와는 完全히 獨立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란서의 社会學者이며 經濟學者인 Jean Fourastie는 그의 著書 "20세기의 偉대한 希望"에서 現代社会에 미친 技術的 進歩와 勞動生産力의 向上에 对하여 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現在 農耕社会에서 産業社会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살고 있으며, 이 過渡期은 세가지 段階로 区分된다. 즉 産業化段階와 産業膨脹段階, 消費財超過生産段階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論은 이미 独逸의 國民經濟學의 歴史學派에 依하여 70年前에

試圖된 經濟段階說을 새로이 Paurastie에 의하여 復活시킨 느낌
이고 그뒤에 美國의 W.W.Rostow에 의하여 繼承되어 發展을 보았
다. 또 Harry G. Johnson에 있어서는 西方側의 몇개 國家는
이제 「富裕한 社會」로 變容하였다고 간주한다.

이 새로운 社會에 있어서는 「大衆이 資本家가 되며」 거기서
解決해야 할 重要한 問題는 「富의 增大에 따라 일어나는 需要의
革新」이라는 것이다.¹⁾

그러나 이것은 Galbraith自身은 最近에 새로운 「産業國家論」
을 展開하였는데²⁾ 이에 의하면 新産業國家는 「工学構造」의 指導
밑에서 200~300의 巨大會社의 움직임에 의하여 支配된다는 것이
다. 이 「工学構造」는 資本과 生産物市場을 統制하는 同時에 政
府 諸 機關과 緊密한 連結로써 機能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多少
獨立적인 「教育者, 科學者階層」이 그 影響力을 強化하고, 그들은
어느 程度까지는 革新的인 變化를 招來하는 能力을 具備하고 있다.

요컨대 이 「工学構造」가 現實에서 社會를 管理하고, 同時에
「教育者, 科學者階層」이 未來의 社會에서 더욱 더 重要한 役割을
占하게 된다는 것이다.

1960年代 前半에는 Galbraith의 所謂 「私的貧窮과 公的貧窮과
共存」에 對한 富의 社會的 優秀性의 問題가 유럽 新資本主義論의
中心的 標語로 登場했으며, 60年代 後半이 되면서 未來社會에 對
한 一種의 現代版 「유토피아」思想이 왕성하게 提唱되기 시작했고

註1) Harry G. Johnson, The Political Economy of Opulence,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London, Ellen Unwin, 1962

註2)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1967

세상의 注目を 받기에 이른다. 「이데오로기의 終幕」(Daniel Bell)에 依하면 世界는 이제 「工業化以後 社会」 或은 「脱工業社会」의 문턱에 서있고 거기서는 旧式의 工場 代身에 理論的 知識에 重点을 두는 「知的諸組織」이 活動의 中心이 되고 意志決定은 漸次로 技術的 性格을 強하게 갖게 된다.

한편 Kenneth E. Boulding는 世界는 「文明以後」社会의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말한다.³⁾ 이 段階에 이르면 世界는 「科學的 이데오로기」에 依하여 引導되면서 着實한 進歩를 보지만, 同時에 새로운 여러가지 問題에 直面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人口增加와 人類絶滅戰爭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것과 並行하여 組織된 集團에 依하여 支配되는 「組織革命」이 일어날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Herbert Marcuse는 「Technotronic」時代의 到來에 對하여 警告를 發한다.⁴⁾

이와같은 世界는 새로운 Technology와 Electronice가 産業組織의 基礎가 되고, 그것이 資本主義的 管理下에 있든, 共產主義下에 있든, 人間의 內面的인 自由는 抛棄되고 階級鬭爭 代身에 一種의 「大衆操縱」이 支配的이 되는것 같은 「一元的」社会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Clark Kerr는 多元的 産業社会라는 模型으로서 一種의 管理社会論을 展開한다.

以上과 같은 여러 見解는, 合當与否는 고사하고 現代産業社会의 特質을 包括的으로 把握하려고한 說明原理이며, 構造模型인 것이다. 그러나 多樣한 見解속에서도 하나의 共通된 底流가 있음을 알 수

註3) Kenneth E. Boulding, The Meaning of the 20th Century, New York, Harper, 1965.

註4)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現代産業社会가 生産力の 拡大와 工學의 놀라운 發展을 基軸으로 하여, 새로운 社会觀 내지는 歷史觀을 要求하는 새로운 段階에 들어갔다는 認識이다. 그것은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모두 生物學的, 進化論的 歷史觀에 對하여도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에 對하여도, 挑戰의 姿勢를 取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觀點에서 새로이 登場한 收斂理論的 社会觀은 現在 對立되어 있는 두개의 社会体制의 將來를 展望하는데 強力한 說明原理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收斂理論에 關한 最初의 著書를 發表한 사람은 Raymond Aron 이었다. 그는 1957年 “産業社会의 發展과 社会的階層”⁵⁾ 이라는 著書를 냈고 이어 社会主義的体制와 資本主義的体制를 産業社会의 두가지 型으로 보고 兩体制의 接近問題를 論한 “産業社会에 關한 18講義”⁶⁾ 를 公開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學者들의 계속적인 研究가 시도되었다. 그중에서도 收斂理論에 關하여 보다 깊은 考察을 한 사람으로서 Jan Tinbergen⁷⁾ 을 들수 있는 것으로서, 두개의 社会經濟秩序의 接近過程에서 必然的으로 形成될 現代産業社会는 收斂理論에 依하면 資本主義的이거나 社会主義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兩秩序의 短点이 止揚되어 長点의 統合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産業社会概念의 適用이 바로 收斂理論과 産業社会的 觀念의 接点이 되고 있는데 이와 關聯해서 蘇聯의 經

註5) R.Aron,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Frankfurt Main und Hamburg, 1964.

註6) R.Aron, Dix-huit leçons sur la société industrielle, Paris, 1962, P. 246

註7) Jan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ging Pattern? "Soviet誌에서 4月 1961年

濟學者 E.Bregel은 "兩體制을 同一視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正當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⁸⁾ 라고 했고 Rostow에 依해 代表
 되는 産業社會的 思考方式은 社會主義體制의 未來問題를 조금도
 考慮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問題視되는
 것은 現代資本主義가 겪어야 할 科學技術的 革命과 거기에
 수반되는 人類의 將來에 관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Ros-
 tow가 展開한 現代社會의 發展段階說은 資本主義社會에서만 適用
 될 性質의 것이어서 獨은 反共的 理論의 再版에 不遇한 셈이다.
 그의 主張인즉 社會主義는 歷史的 發展의 歪曲이며 結局은 後退
 를 免치 못하는 사도인 것인데 그에 比하면 收斂理論은 社會體
 制의 正當性和 몇가지의 長點을 認定하고 있으며 反共的 思考를
 止揚하고 社會主義體制의 發展可能性과 將次의 社會發展過程에서의
 兩體制의 相互作用도 拳論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自由陣營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問題提起가 收斂理論에는 있다는
 點에서 이 理論의 特色이 찾아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收斂理論
 은 그 理論이 갖는 現實性和 政治的 機能의 效率性으로 보아
 兩體制의 어느 陣營도 無視못하는 理論으로 登場한 것이다. 사
 실 兩體制에는 生産樣式의 類似한 社會化段階, 技術의 類似한 發
 達狀況, 一定한 問題에 관한 科學的 探究의 類似한 發展傾向이라
 는 共通性이 있는만큼, 그것이 어떠한 이데오로기의 影響 밑에 있
 든지간에 收斂理論家들은 이러한 事實을 土臺로 그들의 理論을
 展開해 나가리라는 것이 明白하다. 그러나 그 結論이 무엇이며,

註8) : Of, E.Bregel, Die beiden sozialo ökonomischen Systeme und die bürgerliche
 Konvergenztheorie, Einheit誌에서 Berlin 1968. 4,5卷 P. 499

이러한 觀察에서 導出될 수 있는, 아니 理論적으로 一般化할 수 있는 것과 없는것은 무엇인가? 즉 하나의 現象을 理論적인 概念으로 다듬기 위하여 어떠한 中間物을 挾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收斂理論이 안고있는 課題인 것이다.

나. 收斂理論에 對한 共產圈의 反應

收斂理論의 理論家들은 대체로 自由陣營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同理論이 提起하는 問題의 性格과 政策과의 聯關性등으로 共產圈에서 이에 對한 批判이 일고 있는 것이다.

1964年 4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現代 부르조아社會의 收斂理論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共產世界 學者들은 부르조아 社會의 收斂理論을 부르조아 理念의 早期理論이 論理的으로 계속 發展된 것이라고 歸結지웠었다. 그들에 의하면 서방세계의 同 理念은 經濟的 發達의 工業的 類型을 類似性和 統一性을 識別하는 觀點에서 보지않고 單一的인 產業社會의 概念만을 가지고 現代의 發達된 여러나라를 본다는 것이다. 즉 經濟成長段階의 概念에 立脚해서 世界 모든 나라의 社會的 發展이 統一的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봄으로써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接近과 收斂이 可能하다는 論據를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방측 收斂理論家들의 追從者들은 兩 體制의 經濟的인 메카니즘이 平衡되기 마련이라고 보는바 이것은 두 體制가 모두 生産活動의 實際에 있어서는 "利潤"을 目的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 經濟的인 메카니즘이란 經濟的 規範의 單순한 外形만이 아니고 어느 確定한 社會的 諸 關係까지도 具現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측의 收斂理論에 對하여 Vitali Stoljarow

나 H.Meibner⁹⁾, G.Rose 등등이 同 理論을 批判하고 나왔던 것이다.

이들중 G.Rose는 1968年 東独 外交紙에 실린 “두 世界体制 接近에 關한 小論”이라는 論文에서 G.F.Kenan, W.W.Rostow, J.K.Galbraith, Z.Brzezinski 등등 美國의 代表的 수렴이론가들을 一括 批判하되 저희들의 말을 引用하면서 하나 하나 反証했었다. Z.Baezeinski 와 S.P.Huntington이 말한 바 있는 收斂理論의 根本적인 것은 蘇聯과 美國이 서로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外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体制的 變化는 結局 蘇聯에서만 현저히 볼 수 있을뿐 美國은 依然히 福祉와 自由를 維持해 갈것이다.¹⁰⁾ 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結局 蘇聯만이 점차 美國과 같은 現상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된다. 同 理論은 結局 資本主義가 發達된 나라의 大衆만이 「캐피탈리즘」을 人間의 自然法則的 發展策으로 여기고 또한 人間社會의 永久的인 社會形態로써 同調할뿐이지 社會主義的인 變革을 위한 鬭爭은 無意味한 것으로써 度外視한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技術革命의 經濟的 過程에서 두 社會制度가 융합 또는 接近한다는 論證의 실마리를 얻은 W.Buchingham과 J.K.Golbraith, 그리고 効率的인 두 体制를 Optimal한 經濟構造에로 變形시킨다는 假說을 내세운 J.Tinbergen, 그리고 經濟体制뿐만이 아니고 社會

註9) H.Meibner, Konvergenzdenken Von der, Wirklichkeit Bedrängt, In: Einheit, Heft 12/1971. P.1041.

註10) G.Rose, Die Legende von der Annäherung der beiden Weltsysteme, In: Deutsche Außenpolitik, Berlin, 1968 Sonderheft 2, P.162~172

体制 즉 經濟的, 政治的, 理念的, 文化的인 諸 關係가 単一体로써 交互的인 융합과 接近傾向을 보인다고 証示한 P.A.Sorokin 등 모두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對立되어 있는 敵對的인 性格을 아주 소홀히 다루었다고 G.Rose는 批判한다.

다시 말하면 서방측의 收斂理論家들은 生産手段에 있어서 私有財産이나 아니면 社會的 資産을 위한 것이냐 하는 制度的 差異의 根本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즉 두 體制에 있어서 大量生産의 所有와 使用이 完全히 다르다고 하는 根本的인 差異點은 生産力의 發展과 生産機構에 있어서의 部分的인 外的 類似性만으로는 결코 밝혀지지 않는 법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나아가 資本主義的 生産의 目的은 오늘날도 Marx와 Engels의 生存時와 마찬가지로 역시 利權인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生産方法에서는 大量生産의 社會的 蓄積의 財源이 되고 나아가서는 敎育制度나 文化領域과 같은 社會 諸 分野의 要求를 充足하는데 奉仕하는 것이다. 즉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이야말로 個人과 社會間의 歷史的으로 자란 모순을 超克시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具現하는 지름길이며 모든 社會現象은 제각기 經濟的인 社會變換과 制度的 性格에 特徵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結合이란 두 社會制度의 社會, 經濟的 不相容때문에 不可能한 것이라고 G.Rose는 보고 있다. 11)

다. 收斂理論의 將來

앞서 본바와같은 收斂理論은 다른 여러 理論이 그러했듯이, 短期間의 하나의 流行論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長久한 세월을 통해서

註 11) G.Rose의 上掲論文, P. 171

影響力을 미칠 社会理論으로 存在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同理論의 未來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누구나 同 時代人의 評價와 함께 社会理論이 많은 變遷을 겪고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予見的인 問題提起에 대하여는 至極히 慎重한 整度로 臨해야 한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나, 어느 程度의 正確한 答을 얻기 위하여서는 規準設定이 必要한 것이고, 이 應用限界에 따라서 評價의 可否가 成立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關心은 다만 全体社会制度에 關한 社会理論과 이데오로기의 概念에 關한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지, 特殊한 經濟政治的, 社会學的 理論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設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民主的이며 自由主義的인 手段에 符合하여야 한다.
2. 兩体制의 政治的, 經濟的, 競爭의 특수한 條件을 考慮하여야 한다.
3. 모든 理論의 效率性은 當時의 政治的인 方向과 一致하여야 한다.
4. 同 理論의 效率期間은 輿論化할 수 있는 時間과 正比例한다. 한 概念의 理論的 構成에 있어서의 複雜性和 單純性, 一般市民들에게 있어서의 說得作用의 程度, 概念의 難易 등은 重大한 意義를 갖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點은 社会科學的인 理論의 存廢에 關한 條件임은 明白한 일이다. 이런 조건을 充足시키는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效率과 期間은 保證될 수가 있다. 실지로 經濟的, 哲學的, 理論史를 보며는 대부분은 이러한 條件들을 充足했음에도 不拘하고 當時의 政治的 指導力의 戰術的 基本概念과 矛盾되므로서, 或은 그

理論의 構造와 論證이 複雜하여 大衆의 理解를 얻지 못하므로서 完全히 失敗한 경우가 許多하였던 것이다.

收斂理論을 위와같은 條件 밑에서 檢討하여 본다면 大部分의 조건은 充足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收斂理論은 潛在的인 大衆效果에 있어서는 이 理論의 根本理念이 極히 간단하여 모든 사람의 理解에 난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두 體制가 언젠가는 合致한다는 이 內容은 구태여 兩體制를 理解하지 않고서도 쉽게 把握할 수 있는 題目인 것이다. 反對되는 體制에 對한 싸움을 準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結局 하나의 希望的인 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며 "結局 事態는 그렇게 될것을!" 하는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役割을 한다. 또한 여기서 收斂理論의 도움으로 하나의 새로운 広範圍한 社會理論의 展開가 可能하다는 點이다.

收斂理論的인 基本思想은 비교적 새로우며 現代의 世界政治的인 權力布石에서 發生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收斂論者들은 各其의 問題에 대한 定義와 思想과 全體的 概念을 收斂理論的인 思想 體系로 整理하고 理論적으로 展開하여 어느 程度 合理的인 社會理論으로 完成시킬려고 현재 努力하고 있다.

何如든 現在와 未來의 歷史는 반드시 하나의 法則性위에서 進行된다고는 할 수 없고 많은 併發現象과 予見할 수 없는 進行狀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歷史的 現實은 理論에서 發見된 法則性보다는 훨씬 多彩롭고 多樣하다는 것과 아울러 同 理論은 어디까지나 高度화된 産業社會를 前提로한 것이라는 點을 알아야 할 것이다.

三. 南北韓 統一戰略과 收斂可能性

가. 統一原則과 民族主義

나. 統一論議와 「이데올로기」

다. 統一論議와 戰略比較

라. 統一方法과 北韓의 戰術

마. 統一戰略과 收斂可能性

한글로 된 본문 텍스트의 일부가 보임.

원래 民族은 國家의 內在的 存在理由로서 國家의 變貌에 있어서 民族主義가 接續하는 것이나²⁾

따라서 民族主義는 統合原因이 되며 對內的 分斷原因을 消滅하여 民族 스스로의 自律的 統合力의 求心力을 發揚하여 民族의 自己

註1) 李用燾, 「韓國統一에 있어서 民族의 問題」, 『韓國統一의 理論的 統合論』, 高天重社, 1972, 285~286面.

註2) 李用燾, 「韓國民族主義의 諸問題」, 『國際政治論叢』, 韓大, 韓國國際政治學會, 1967.

三. 南北韓의 統一戰略과 收斂可能性

가. 統一原則의 民族主義

먼저 統一問題를 論함에 있어 統一의 基本的 觀点を 「民族統一」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國土統一」과 「民族統一」은 相關的概念이면서도 國土統一은 領土的 개념인데 反하여 民族統一이란 領土的 分斷狀態의 長期化로 因한 民族分裂과 同一民族간의 政治的, 思想的, 敵對化를 結果한데 관심하면서 歷史的인 民族生活의 再結合에 力점을 둔 것이다.

「民族統一」의 本質的 要請은 韓半島의 分斷으로 因한 「이데올로기」의 對立과 感情的 敵對化의 悲劇에서 提起되는 것이다.

더우기 國際政治文化의 變質에 따라 統一問題는 民族의 범주를 벗어나 韓國統一에 있어서의 「民族의 主体的 論理」는 成立되지 못하였고 「傍觀者의 論理」 「民族범위를 벗어난 論理」만 存在하였던 것이다.

원래 民族은 역사적 개념이며 民族이 國民이라는 統合概念으로 上昇하고 民族이 國家의 內在的 存在理由로서 公認된다는 價值原理의 變貌에 있어서 民族主義가 抬頭하는 것이다²⁾.

따라서 民族主義는 統合要因이 되며 對內的 分斷要因을 檢제하여 한 民族 스스로의 自律的 統合力의 求心力을 키우는 民族의 自己

註1) 申一澈, 「韓國統一에 있어서 民族의 問題」, 韓國統一과 体系的 統合論, 高大亞研 1972, 285~286面.

註2) 李用熙, 「韓國民族主義의 諸問題」, 國際政治論叢 第6輯 韓國國際政治學會 1967.

決定性的 問題이기도 하다.

단일 統一問題를 強大國간 勢力均衡의 產物로 말기거나 「이데올로기」的인 吸收指向만을 고집한다면 「民族國家保存」과 「民族國家 형성」을 위한 民族의 自己決定性이 생기지 않으며 民族分裂의 現狀維持밖에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 對內外的 葛藤의 固守는 결국 韓半島의 分斷만을 促進하는 「이데올로기」鬭爭의 價值觀을 결과하고 統一은 兩者択一의 強要 즉 分斷의 永続化에 帰着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A. 에트지오니」(A. Etzioni)가 지적한 바와같이 『統一은 民族主義 이전의 時期 民族主義以後의 時期, 또는 民族主義 그 자체의 表明의 時期에서 發展될 수 있다.

民族主義 이후의 時期의 統一은 다른 두 時期에서 이룩되는 것 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며 民族主義를 表明하는 時期가 統一을 이룩하는데 가장 손쉬우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³⁾ 고 하여 民族統一은 역사적이고 始源的인 民族主義의 回復과 民族의식에의 接近이 主要要因이 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렇다면 南北이 다같이 統一政策을 수립함에 있어 統一의 「實踐的 主体」요 民族의 「統合의 틀」을 형성해 주는 基本的 目標 下에 設定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朴正熙大統領의 「8.15宣言」이 있기 까지에는 —— 물론 現속에도 存続하고 있지만 —— 「民族」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닌 「이데올로기」란 차원에서 統一原則을 수립하여 體制속으로의 吸收統合

註3) A.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5,

만 強調하면서 唯一性理論에 입각한 存在의 否定에 立脚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때 統一原則은 「民族統一」이라는 目標보다 「이데올로기」的이며 戰略的 측면이 훨씬 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優先에 의한 統一問題接近은 그 性格上 現狀打破的 일때는 武力統一論으로 귀결되고 現狀維持에 安住할 때는 「무계의 韓國」이라는 유지적 차원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⁴⁾.

民族을 「統合의 틀」로 設定하여 統一의 基本秩序를 형성한다면 ① 武力統一의 排擊과 統一의 平和的達成, ② 暴力和 強制가 排除된 民族統一, ③ 民族自決에 입각한 自主統一이라는 데 帰着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國際機構의 保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統一의 諸原則을 基盤으로 한 統一問題는 따라서 漸進的 이요 平和的으로 긴장을 완화하면서 南北韓의 「葛藤解消」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民族統一을 위해서는 「民族」이라는 統合理論의 設定위에 脫「이데올로기」的인 平和的 接近戰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統一이라는 目的達成을 위하여 「分裂的 政治現狀」의 考慮위에 葛藤解消의 방안 즉 「平和的 名分」을 먼저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때 「井上益太郎」의 「今日의 韓國」의 圖式에서 「內部로부터의 妥協的 方案과 共存방안 그리고 外部로부터의 平和

註4) 申一澈, 前掲論文, 297面

維持를 위한 國際的保障方案」이 抽出될 수 있으며 5) 이를 基礎으로 現實的인 「善意的 競爭關係」가 수립될 것이며 南北간의 緊張완화는 辯証法的으로 마련될 것이다.

물론 北韓도 잘못 統一을 「民族自決의 原則」의 문제로 또는 「平和的 原則」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統一政策의 基本原則을 「民族」보다 「이데올로기」에 立脚하고 있으며 「民族」은 「스탈린」의 民族理論을 教條적으로 적용하여 南韓의 소위 「外侵상태」에서의 解放戰略으로 驅使하고 있음에 民族統一의 未解決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6).

그러므로 北韓의 統一原則은 民族的 차원의 統一目標달성이 아닌 「이데올로기」優先의 統一原則을 수립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하겠다

나. 統一論議와 「이데올로기」(Ideology)

民族統一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民族의 自己決定性을 拒否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의 超克이 가장 要請되고 있다.

원래 「이데올로기」는 虛構性을 갖고 있어서 國家目的을 合理化 내지는 正當化시켜 주는 구실을 맡고 있다. 그리하여 國家目的의 包括的 또는 具體的 宣言文의 형식으로 登場한다.

이 「이데올로기」의 眞偽의 성질은 意識적으로 計算된 諸行動經

註 5) 李廷植, 「統一論議의 限界와 範圍」 安保研究 創刊号, 東國大安保研究所 刊 1972, p.89 의 圖式에서 抽出한 것이다.

註 6) 北韓이 지금까지 主張한 統一方案을 살펴보면 소위 「美帝國主義勢力과 그 同調勢力의 구축을 위한 革命戰爭과 南北韓의 軍事問題 해결을 들어나와 外軍撤収와 複合적으로 主張하고 있다.

路 (Courses of action) 를 통하여 具體적으로 확인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統一提案은 事實上 國家의 정책과 欲求를 正当化 또는 偽裝化하여 集團利益을 增大시키는데 「이데올로기」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統一提案만을 되풀이 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國家의 「이데올로기」의 統一追求의 根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곧 國家의 基本法, 規約 文書, 公式聲明, 宣言, 聲明, 法令 및 條約 등에서 表現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한 統一政策을 基調로 삼고 있으며 韓國은 自由民主主義的 「이데올로기」에 의한 統一政策을 基調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脫民族的 立場에서의 統一 論議는 이미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吸收統攝이라는 前提下에 平行線을 걷기 마련인 것이다 즉 北韓은 統一論議의 어떠한 方案을 提出했던 산에 궁극적으로는 「南朝鮮에서의 革命」이란 방법을 통한 全韓半島의 共產化에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具體적인 例는 北韓統治能力의 根幹인 勞動黨規約前文에서 「勞動黨의 当面目的으로서의 北半部の 社會主義完成과 勝利를 最終目的으로서의 全韓半島의 社會主義社會건설」⁷⁾을 내세우고 있고 또

註7) 소위 「朝鮮勞動黨規約」은 1949年6月 南勞黨과 北勞黨이 合黨하여 結成한 「朝鮮勞動黨」에서 채택한 것으로 1961年9월18日 第4次 黨大會에서 修正하였으나 前文은 變함없이 共產化統一을 포방하고 있다.
尼上正男,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成立とその發展」 共產圈問題 1962年 6月号26面參照.

70년 11월 2일 第5次共産党大会에서도 金日成은 『南韓人民은 그들의 革命的 鬪争에서 외롭지 않다. 그들은 北韓에서 강력한 革命基盤을 가지고 있다.

南韓革命은 「民族 및 階級圧制로 부터」 그리고 「美帝國主義와 그들의 앞잡이들의 擄取로 부터」解放하기 위하여 南韓人民 자신들로 부터의 鬪争으로서 나오는 것이다.

圧制받고 擄取받는 大衆들은 그들自身의 革命鬪争으로서만 自由와 解放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狀況下에서 南韓革命은 그들 자신들이 솔선한 南韓人들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同一한 民族인 北韓人民은 南韓人民들의 혁명투쟁을 능동적으로 支持하고 격려해야 할 義務와 責任을 가지고 있다.』⁸⁾ 고 하였다.

한편 北韓憲法도 党的 基本路線에 따라 平和統一의 表現은 있으나 「民主基地」路線에 입각하여 ① 全体人民의 政治思想的 統一과 社会主義的 生産관계의 土台구축(1條) ② 革命鬪争의 傳統을 이어받은 革命的 政權(3條) ③ 「맑-스레닌」主義를 적용한 指導指針(4條) ④ 國家는 社会主義制度는 保衛하며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함(11條) ⑤ 武裝力의 使命은 社会主義制度와 革命의 戰取物保衛(14條) 등을 주장하고 있다.⁹⁾

더우기 南北對話가 한창 進行中인 73년도에도 金日成은 新年辭를

註8) 金孔烈, "北韓의 新憲法해부" 国土統一, 国土統一院 刊 1973年1月号 1973, 77面参照

註9) 北韓은 72年12月27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1次 會議에서 從來의 憲法을 修正하여 48年9月8日 制定한 憲法을 6次 改正한 것으로 人民民主主義에서 社会主義로의 移行을 못박고 南北關係를 考慮한 平和統一條項도 있으나 원칙상 Ideology의 基本路線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통해 四大軍事路線의 철저한 관찰과 防衛力강화를 강력히 主張하여

... 번합이 없음을 나타내었던 것이다.¹⁰⁾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武裝된 統一政策은 첫째 南韓에서 共產地下黨組織, 둘째 反美救國統一戰線의 結成 및 奪權鬭爭의 展開, 셋째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통한 全韓半島의 共產化의 實現이라는 段階를 수립하고 이를 對內外的 環境要因과 결합하면서 具體적으로 戰略을 수립해 왔던 것이다.¹¹⁾

물론 戰略的 측면에서는 暴力攻勢面과 平和攻勢面の 兩面性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韓國이 현재까지 「帝國主義的 殖民地霸權」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관점에서 소위 「民族解放運動」이라는 性格을 지니고 있다.

한편 韓國의 統一政策은 헌법전문에서 「우리 大韓民國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역사적 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國를 건설함에 있어」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기하고」 「밖으로는 世界平和에 이바지 하므로써」 등에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완수하는 길이 「역사적인 것」임을 明白히 하여 民族主義와 民主主義의 정신에 입각한 統一原則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또 大統領의 『祖國의 平和統一에 대한 성실한 義務』를 규정하여 (43條3項) 民族統一의 「실천적 主体」인 國民의 統一意志를 具體적으로 실현할 努力의 義務를 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註10) 金孔烈, 前揭論文 77面參照

註11) 國土統一院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1973年度(I), 統一院統一研修所 1973, 290~291面參照

그러나 68년에 제정한 國民教育憲章은 「反共民主精神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自由世界の 理想을 실현하는 基盤이다」라고 하여 維新憲法의 統一原則과는 다소 衝突되는 自由民主主義 「이데올로기」下의 民族統一을 主唱하고 있어 「民族」이라는 統一原則에 입각한 諸宣言과 規約등을 改正하여 衝突과 마찰을 根本적으로 接近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北韓은 아직도 「이데올로기」로 강력히 武装되어 民族統一이라는 始源的이고 歴史的인 接近을 試圖하지 않고 있음이 分明하며 反對로 大韓民國은 「民族統一」이라는 역사적이며 主体的인 「統合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현상에 처한 民族統一의 戰略은 어떠한지 알아 보기로 하겠다.

다. 統一論議와 戰略比較

「K. 도이치」(Karl W. Deutsch)는 共同體의 개념에서 『共同體의 構成員들이 그들의 論爭을 해결함에 있어 物理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다른 方法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保障이 있어야 한다』¹²⁾고 지적하여 統一戰略수립에는 物理的 方法이 아닌 다른 方法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점, 즉 平和的 方法을 통한 統合戰略의 수립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註 12)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in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Uni Press 1957, P.5

더우기 「民族統一」의 戰略의 수립에는 民族利益이 優先되어야 하며, 民族의 「基本的인 願望의 方向」(general direction desired)에서 抽出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戰略은 目的論의 下位개념에 속하며 目的達成을 위한 一定路線의 指示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戰略의 개념은 최초에는 戰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軍事作戰의 하나의 設計圖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諸政策의 目的 달성의 방법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므로 戰略을 長期的인 개념이 되지 못하고 時間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볼때, 戰略이란 정해진 國家目的을 성취시키기 위해 採択되는 실천적 行動(administrative action)의 圖式이라 定義내릴 수 있다¹³⁾. 이 戰略은 때로는 「이데올로기」와 矛盾되면서 國家目的을 支援하는 수가 많다.

또한 이 戰略의 구체적 決定 및 一連의 결정들은 戰術的 立場에서 파악되고 있다¹⁴⁾.

그럼 과연 北韓의 統一戰略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北韓의 統一戰略은 이미지적한 바와같이 「이데올로기」的 吸收統一에 基礎하고 있으며 이러한 統一目標의 달성을 위해 體制內外的 환경요인과 「統一」이라는 民族欲求를 時間의 경과에 따라 暴力攻勢面과 平和攻勢面에

註13) Norman J. Padelford & George A. Lincoln, The Dynamics of Internatics, New York 1962, P.227.

註14) John P. Lovll, Foreign Poli in Perspective, Holt Rinehart & Winston 1970, P.57

兩面에서 活用하였던 것이다. 이 兩面의 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平和攻勢面	暴力攻勢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韓外軍撤收 • 平和協定締結 • 軍 縮 • 政治協商 • 多務的合作交流 • 南北總選舉 • 南北聯邦制 • 民族會議 	<p>人民民主主義革命 (統革黨-勞動者+農民+學生+知識人)</p> <p>四大軍事路線 (게릴라派遣, 軍事的衝突)</p>

이러한 현상은 北韓이 지금까지 主張하여 온 統一方案에서 잘 나타나 있으니 平和攻勢面은 결국 「두개의 韓國의」段階를 걸친 「하나의 朝鮮」이라는데 主眼點을 두고 있으며 暴力攻勢面은 「武力的 방법」의 단계를 거친 「하나의 朝鮮」이라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년 解放以後부터 48년 大韓民國政府 수립과 「유엔」에서의 大韓民國 『唯一合法政府』로서의 承認이 있기까지는 대체로 體制內的 戰略을 수립하여 「政府正統性」문제를 놓고 상호 法統否認이라는 前提下에 體制統合을 論議하여 이 時期를 굳이 表現한다면 體制統合을 위한 感傷的 統一論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時期는 「이데올로기」로 덮 包裝된 時期였고, 解放後的인 民

族感情이 內在하고 있었기 때문에 統合을 위한 「合作」의 방법을 논의 했으나 脫民族的 勢力의 浮上和 國際性和 現實性이 점차 擴散되어 統一論議는 外延化됨과 동시에 政略性에 基礎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던 것이다.

48년 民族統合의 假想적 段階가 지난뒤 韓國의 正統性확인후 60年代前半까지는 統一論議가 완전히 理念化하여 相對方을 吸收하려는 것이었다.

그 代表的인 例가 北韓의 6.25 南侵인 것이었다. 6.25 南侵 理念과 國際主義가 앞서는 가장 典型的인 吸收主義의 역사事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武力的 手段을 거친 「하나의 朝鮮」 戰略의 으뜸가는 例인 것이다.

더우기 戰爭過程에서 「유엔」이 關係되므로서 韓半島 問題의 國際性은 汎世界的 規模와 變위를 갖는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것은 北韓의 共產主義移入의 「前進基地」로서의 理念의 優先性의 強化가 相對的으로 南韓에서 그러한 현상을 일으켰다.

이러한 過程속에서 統一問題는 「民族」보다 國際的關係에 의하여 外延化를 가져왔고 統一의 狀態를 未知의 時間속의 것으로 強化시켜 완전히 戰略的 방편과 名分만으로 持續되어 왔던 것이다.

이 時期의 統一戰略을 완전히 冷戰的 統一戰略이었다고 할 수 있다.

60年代 後半부터 70년 8월 15일의 「8.15宣言」까지는 國際政治의 多元化현상과 中蘇紛爭 그리고 對內的인 變化등으로 統一論議는 점차 主觀的으로 移行되어 理念의 固着化위에서 内部指向的 民族統一戰略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北韓도 中蘇紛爭으로 인한 소위 「自主化路線」¹⁵⁾을 宣言하고 内部指向化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소련의 平和共存정책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北韓의 統一戰略은 平和共存論理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統一戰略이 理念을 超克한 民族的 次元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統一論議가 内延化되어 간다고 해서 곧 民族統一과 直結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体制能率化에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70年 「8.15宣言」에서 부터 지금까지는 能率社會의 内実化를 기반으로 또 國際緊張緩和의 政治文化를 基礎로 民族主義的 차원의 統一論議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8.15宣言」은 規実증정의 바탕위에 相互「善意的 競争」을 제의하였다는 점보다 「統治者的 統一文化와 大衆的統一文化가 民族的 바탕위에서 一致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8.15宣言」은 共存의 바탕위에 「平和의 名分」을 提起한 첫段階였고, 이 첫 段階를 契機로 하여 赤十字會談이 성공하여 民族文化統合의 한 契機를 마련하였고 「7.4南北聲明」이 發表되어 「自主」「平和」「民族團合」등 統一의 三原則이 수립되어 「民族統一」에로의 脫「이메올로기」的 조치가 취하여져 民族主義的 차원의 統一原則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註 15) 北韓 勞動新聞 1968년 8월 12日에서 金日成은 「自主性を 옹호하자」고 하여 金日成 唯一思想에 입각한 對南統一 戰略을 수립하였으나 이것은 오히려 國際主義와 民族主義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때에 잘못하면 武力에 의한 吸收統合을 무모하게 企圖할 可能性은 있는 것이다.

이 단계는 民族的차원의 統一原則이 수립된 段階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兩會談가운데 北韓은 脫民族的 統一戰略의 底意를 노출 시키면서 아직도 「平和定着을 위한 民族主義」의 回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朴大統領은 「6.29宣言」을 통하여 平和定着을 國際社会에 保障받으며 실질적인 統一의 바탕을 마련하려 하자, 北韓은 소위 「五大綱領」을 내세워 「理念과 民族」이라는 内部的 葛藤상태를 露出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¹⁶⁾.

그러나 「7.4序明」으로 인하여 脫理念的 統一原則에 合意를 보았다는 점은 統一의 収斂可能性을 豫示한 것이다.

그렇다면 目的論的 統一論에는 接近한 것이나 過程論的 統一戰略에는 아직도 상당한 前提條件이 提起되고 있다. 이것은 統一後의 社会体制를 考慮한 것으로 아직도 脫民族統一戰略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럼 北韓은 지금까지 두개의 統一戰略을 어떻게 戰術化하여 왔는가 알아 보기로 하겠다.

라. 統一方法과 北韓의 戰術

1. 武力的방법의 段階를 통한 「하나의 朝鮮」戰略

이 段階는 人民革命戰略에 基礎하고 있으며 武装力으로 吸收統합한다는 것이다.

人民革命戰略은 「맑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武装鬪爭的 방법으

註16) 金準, 「北韓人民戰略解部(上)」 国土統一 73年4月号 国土統一院 刊
1973, 43~44面參照

로 政權을 奪取하는 것을 最高의 형태로 삼고 있다. 「맑스」의 辯證法的 唯物論의 三大法則에서 지적된 바 있는 「물연한 飛躍」의 諸發展法則을 그대로 적용하여 共產主義政權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諸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인민혁명전략론	이론적 근거	주도세력	적용 지역	성공여부
맑스엥겔스	社会革命論	변증법적 唯物 論史的 唯物論	프롤레타리아 階級	전 세계	部分的
레닌	볼셰비키革命 論	레닌의 革命理論	勞農同盟	러시아	성공
스탈린	兩陣營論	一國社會主義 聯合전선론	赤軍의軍事 力및 聯合戰 線 구성	東8歐獨國 및北韓, 中 國, 越盟지원	대체적 성공
毛沢東	革命戰爭論	新民主主義論 (矛盾論 實踐論)	農民, 勞動 者, 民族부 르조아, 急 進知識人, 小市民등	中國 越盟 지 원	성공
체게바라	革命戰爭論	毛沢東의南美型	少數혁명 指導者 계 릴라 戰士 엘리트	쿠바, 中南 美	부분 성공

人民革命戰略은 時間, 場所, 環境 등의 諸變形要因에 따라 變形되어 왔으며 北韓은 「스탈린」의 兩大陣營에 따라 對南戰略을 수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왓슨」(H.S. Watson) 教授에 의한 東歐赤化三類型的 방법도 적용하여 聯合戰線方式인 合作運動의 展開, 地下黨組織의 強化 등 武力南侵의 前段階的 措置를 통하여 合法, 非合法活動을 전개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이메올로기」優先에 의한 現狀打破的 統一接近은 暴力鬭爭을 수반하기 마련인바 세칭 南勞黨의 精版社事件(46年5月) 이후부터 特殊行動隊로 하여금 暴力手段을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 17)

이렇게 되자 共産黨은 北韓의 소위 「民主基地」를 基礎로 南韓에서는 暴力活動과 根拠地 구축作業에 着守하였던 것이다.

南北統合에 관한 論議가 國際共産主義運動으로는 實現이 어렵게 되자 統一問題는 外延化되어 「유엔」에서 統一問題가 論議되고 統一政府수립을 위한 實質的 行動이 取해지자 北韓은 「유엔」한국臨時委員團의 入北拒否와 南韓單政수립 反對運動에 焦點을 두어 南勞黨組織의 特殊行動隊로의 再編, 江東政治學院訓練「게릴라」의 根拠地 구축을 「一面一民主化部落」설치와 동시에 9月 鐵道罷業, 10月嶺南暴動, 7.27鬭爭, 解放記念市民大會등을 전개하면서 民族解放鬭爭의 準備樣相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다음은 大韓民國政府수립과 「유엔」에서의 正統性확인인 있고 國

註17) 共産黨의 非合法活動時期에 관하여는 많은 異論이 있으나 대체로 49년부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精版社事件 이후 美軍政으로부터 合法活動을 크게 妨害받자 非合法態勢로 戰術轉換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炯旭 著, 共産主義活動과 實際 光明出版社, 1972. P. 687~688面 參照

內的으로는 共産黨이 不法化되자, 北韓은 「게릴라」活動의 集中的 作戰으로 轉換, 南韓 곳곳에서의 소위 「解放地區」擴大戰術로 發展하였다. 이러한 戰術은 點형태에서 線형태로, 線형태에서 面형태로 擴大하여 大衆的 武裝봉기를 敢行하여 單政의 전복과 政權탈취에 力點을 두었던 것이다.¹⁸⁾

그러나 南韓에서의 大衆的봉기의 計劃이 失敗되자 殘余「게릴라」勢力과 北韓에서의 政治工作員들은 政治的 混亂과 全面戰攻擊에 대비한 補助的 任務를 수행하기 위한 機動性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南勞黨과 北勞黨은 「朝鮮勞動黨」으로 合黨하였고 南北의 統一戰線은 「祖國統一民主主義民族戰線」으로 合하여 결국 單一指導路線上에 입각한 共產主義活動이 展開되어 새로운 樣相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¹⁹⁾ 즉 지금까지의 「南半部人民들의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擴大」라는 次元을 넘어 正規兵力에 의한 武力統一方法의 採択을 意味한 것이었다.²⁰⁾ 6.25 事變이 바로 이것이었다. 6.25 事變은 소련·中共의 庇護下에 北韓이 도발한 武力統一企圖였다. 그러나 그 戰爭은 再統一의 肯定的 局面이 못되고 오히려 否定的 性格을 띤것은 戰爭자체가 현저하게 國際化된 戰爭이었고 冷戰體制속에서 「實踐的 主役」이나 對內的인 순수한 「內戰」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 戰爭을 촉발한 北韓은 武力統一의 企圖가 統一의 名分만을 세운 理念面의 南韓赤化에 있었

註18) 前掲書, 722 面

註19) 前掲書, 741 ~ 742 面 및 崔錫 著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共産單黨의 戰略과 戰術, 新文化社 1970, 201 ~ 203 面

註20) 國會國土統一研究委員會報告書, 統一白書, 國會國土統一研究委員會 1967, 129 面

다. 이점에서 韓國動亂은 統一의 또 하나의 否定的 局面을 더욱 뚜렷이 하였고 民族統一과 階級鬭爭에 의한 階級的 統一, 兩者의 統一問題에 있어서 混線이었다.²¹⁾

統一의 問題에 있어 「이데올로기」를 優先한다는 것은 그 본성상 脫「이데올로기」的인 民族의 立場을 退色시키기 마련인 것이다.

그 결과는 6.25는 休戰이라는 假想的 平和속에서 韓國의 國土分斷 狀態는 國際政治的 對立의 「前哨基地」化가 促進되었고 對內的으로 는 政治體制의 效率性에 보다 많은 力點을 두게 되어 결국 韓半島內에서는 「兩者択一」이 強要되는 思想風土로 인해서 이 分斷과 戰爭의 原因에 대한 陰謀論的 政治名分」²²⁾만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北韓은 武力的 方法을 통한 「하나의 朝鮮」戰略은 6.25 事變의 終結로 事實상 失敗하였고 또다시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修正論的 接近을 試圖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修正論的 接近 方法이 바로 「두개의 韓國」단계를 거친 「하나의 朝鮮」戰略인 것이다. 이 戰略은 平和的 方法을 통한 東歐赤化類型의 方法을 長期的 立場에서 實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聯合戰線형성의 段階는 國共合作의 類型에서 窺見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두개의 韓國단계를 거친 「하나의 朝鮮」戰略

休戰協定の 결과 54년 4월부터 約4個月間에 걸쳐 열린 「제네바」政治會談은 從來와 같이 體制內的인 正統性을 外延化시킨

註1) 申一澈, 前掲論文 289面

註2) W.H.Dry, Philosophy of History, Foundations of Philosophical Series 1964, 4, Casual Judgement in History 中 The Casual historiography of the American Civil War의 3類型中初期에 해당하는 Conspiracy theory에 해당한다.

意圖가 나타났다. 卞榮泰韓國代表가 提示한 「14個項統韓方案」이
 나 南日北韓代表가 提示한 소위 「6個項統韓方案」이나 다같이 역
 사적 正統性을 否認한다는 基礎위에 상호 吸收統合의 戰略만을 주
 장하여 統一論議의 接近은 存在할 수 없었다. 그러나 南日의 主
 張은 從來 그들의 主張의 範疇를 벗어난 것이 아닌 이른바 外軍
 撤収, 政治協商, 南北總選 등을 變形한 것으로 戰略上 두개의 韓國을
 통한 하나의 朝鮮戰略이 內在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反
 美救國統一戰線형성이라는 戰術下에 南과 北의 代表로 하여금 聯合
 政府형성을 가져오고 終局的으로는 全韓半島의 共產化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의 平和共存理論의 展開와 그 支持的
 立場의 統一論, 美蘇의 和解와 權力關係의 增進 및 中, 蘇紛爭에서
 보여준 共產圈分裂에 따른 南北聯邦案, 國際緊張완화와 朴正熙大統領
 의 「8.15宣言」과 「6.23宣言」에 따른 南北聯邦案들은 사실상
 「共存」의 現實的 是認이라는 側面과 유리한 條件造成을 통한 統
 一國家(共產化統合)형성의 措置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엿볼수 있다.
 물론 5.16 革命후에는 南韓의 體制安定과 北方三角同盟締結후에는
 소위 「3段階統一戰略」을 수립하고²³⁾ 四大軍事路線의 강력한 실천과
 緊張高潮를 가져와 對南「게릴라」活動을 통한 南韓內部붕괴作業에
 나섰던 例도 있다.

50年代의 平和共存理論에 따른 統一論은 共存理論의 統一問題에
 주는 肯定的 意義를 強調하면서 ① 共產圈의 經濟力을 비롯한 全
 體的勢力이 西方圈을 압도할 것이라는 점, ② 共產圈의 勢力和

23) 北韓은 1961年9月17日 소위 勞動黨 第4次會議에서 「3段階統一戰略」을
 결정하였고 70年11月2日 第6次黨大會에서도 이를 再確認한바 있다.

團結이 北韓의 統一정책전개에 強力한 배경이 된다는 점, ③ 南北韓의 經濟社会發展 및 對內的 단결면에서도 北韓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어 南北간의 政治協商論을 주장하였으나²⁴⁾ 60年代에는 美·蘇의 和解, 中·蘇의 紛爭, 그리고 韓國內部事情의 急變으로 平和共存의 肯定的 側面의 變質을 가져와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共存政策은 「統一政策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強調하면서²⁵⁾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戰術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이르러 緊張緩和라는 國際政治文化의 登場과 朴正熙大統領의 「8.15宣言」이라는 새로운 事態가 發生하자 北韓도 統一을 위한 論理体系의 再編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朴大統領의 「8.15宣言」은 民族感情의 一致와 統治者的 政治文化의 統一觀과 大衆的 政治文化의 統一觀의 調和를 이루었고, 平和的方法에 의한 「共存」의 개념을 뚜렷이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民族的 次元의 劃期的, 現實的인 것이었다. 그 결과 政治的次元의 「調節委」와 大衆的次元의 「赤十字會談」이 進行되어 政治的 次元

註24) 1957年12月5日 勞動党中央委員會會議에서 金日成은 연설을 통해 지적하기를 “소련을 비롯한 강력한 社會主義陣營과 世界平和愛護力量 및 南朝鮮의 모든 愛國的力量을 團合하여 美帝國主義와 李承晚 徒黨을 反對하는 鬪爭에 動員한다면 우리나라의 平和統一은 達成될 것이다.” 라고 하여 平和共存理論을 統一의 肯定的 側面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註25) 金日成은 1965年10月10日 연설을 통하여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와 의 平和的 共存政策은 社會主義國家 對外政策의 한 側面에 불과하다. 결코 그러한 政策에 의해서 反帝鬪爭을 濶解시킨다면가 또는 그에 의해서 弱化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여 統一戰略의 修正과 共存理論의 肯定的 側面의 봉지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의 接近方法과 大衆的 次元의 接近方法을 토의하였으나 北韓은 오히려 이것을 民族的 次元에서가 아닌 理念的 次元에서 上下部統一戰線의 형성을 위한 手段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6.23 外交宣言」은 南北對話의 보다 구체적인 「共存」개념을 外延化시켜 提示하면서 國際社會에서의 平和的 경쟁關係를 明示하였으나 같은날 金一成은 소위 「五大綱領」을 내세워 共存개념의 外延化에 反對하고 南北對話 과정에서 주장했던 「軍事問題 優先解決」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宣傳的, 進술적 方向으로 크게 전환하고 말았던 것이다.²⁶⁾

이상 60년 8월 14일 南北聯邦制수장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北韓이 제의한 南北聯邦制는 두 개의 韓國을 통한 「하나의 朝鮮」전략이라는 내용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나 다만 「北韓의 優位」라는 위치에 실패와 「北韓의 優位確保」不可能이라는 위치에 실패와는 그 進술상의 差異는 현저한 것이었다.

이 提案에서 比較해 볼때, 첫째 南北對話이전에는 独立的 諸方案을 提示하고 折一의 方式을 折하였는데 對話이후에는 併存的인 것으로 提議했다는 점, 둘째 對話이전에는 宣傳的 鬭爭的 攻勢를 취한 반면에 對話이후에는 이와 併行하여 對話의 主題로 提起하였다는 점, 셋째 對話이전에는 聯邦制실현을 위한 條件은 없었는데 對話후에는 軍事問題優先解決의 先行을 주장했다는 점은 이른바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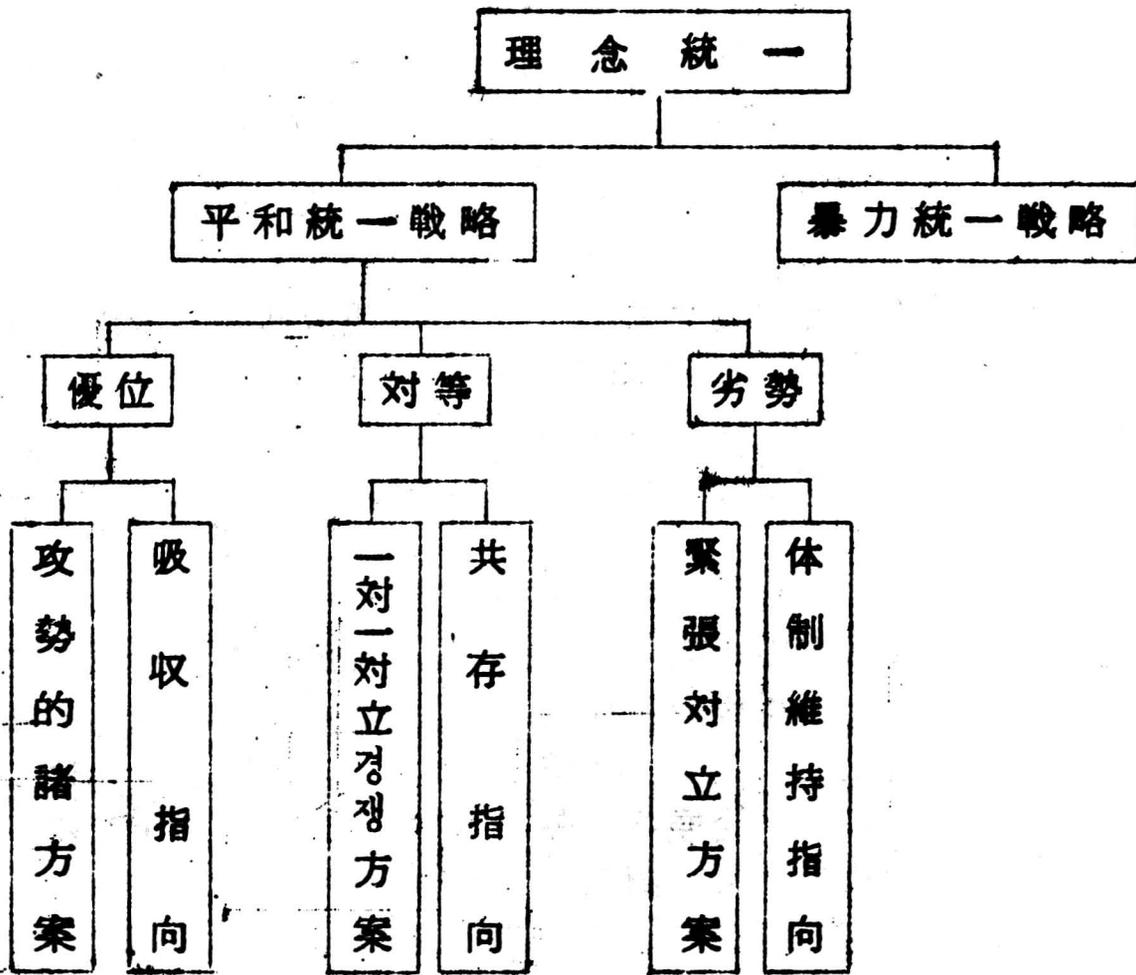
註26) 朴大統領의 「6.23宣言」이 있자 같은날 金日成은 午後8時「후사크」 제코 共産黨總秘書歡迎 연설을 통해 緊張緩和, 合作交流 大民族會議, 高麗聯邦共和國, 單一國家로 「유엔」加入등 이른바 「五大綱領」을 내세워 現狀認定을 바탕으로 現狀否認을 主張하는 二律背反的 統一戰略을 수립하여 發表하였다.

韓의 優位나 對等이나 또는 劣勢나에 따라 戰術的 效果的 差異를 明白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南北聯邦制比較

区 分	60. 8. 14 南 北 聯 邦 制	73. 6. 23 南 北 聯 邦 制
制 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存政治制度 존속 ○ 兩政府의 活動保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存政治制度의 當分 存統
前 提 条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勢干涉 없는 南北 總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事的 對峙상태 해소
民 族 會 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最高民族委員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성 : 兩政府代表 ② 任務 : 主로 經濟 文化 發展은 同 일적으로 調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民族會議 ○ 구성 : 南北各界各層人 民과 政黨, 社 會團體代表
交 流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 실현
國 號		高麗聯邦共和國
「유엔」關係		單一國家로 加入
기 타	民族委員會를 받아 들이 지 못할 경우 產業界代 表로 구성되는 經濟委員 會구성	

이렇게 볼 때 北韓의 統一戰略은 하나의 圖式으로 抽出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앞에서 보는 바와같이 北南의 聯邦制案은 「共存」개념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主客觀的 情勢의 推移에 따라 南北聯邦制를 對南赤化를 위한 革命的立場에서 다룰 것이며, 반대로 對南赤化戰略이 난관에 부딪칠 경우에는 南北간의 平和關係유지 및 自己體制保全이라는 立場에서 다룰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27)

註27) 北韓編輯部, 『의 南北聯邦制를 主張하는가』北韓 1973年9月号 北韓問題研究所 刊 1973 31面 參照

요컨대北韓이 提案한 南北聯邦制案이 統一指向的側面이 있다고 하여 民族共同의 理念에 기초한 統一國家 실현이 아니라 共產「이 메올로기」統一에 궁극적 目標가 있기 때문에 統一을 위한 努力과 意志를 담당하는 領導權의 二重構造的 矛盾을 極小化시키는 방안을 提示함이 없이 多務的 接觸과 合作등을 내세워 統一戰線 形성을 劃策하는 이른바 「두개의 한국」 단계를 거친 「하나의 朝鮮」 전략의 基本임을 알 수 있다.

다. 統一戰略과 収斂可能性

「도이취」는 『주어진 領土안에서 國民들에 의한 共同体와 그 制度 그리고 그 運營에 대한 意識이 강하여 오랜 時日에 걸쳐 平和的 變動(Peaceful change)에 의존함이 保障될 만큼 되었을때 共同体는 이룩될 수 있다』고 하여 共同体 구성의 前提로 「平和」를 내세웠다.²⁸⁾ 그러나 異質體制간의 平和論理는 現狀維持라는 基盤위에 成立될 수 있으며 現狀維持는 緊張緩和가 前提될때 결국 對話를 통한 平和統一의 可能性이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分裂의 政治的狀況」인 지금의 民族統一은 現狀維持 즉 「共存」 개념위에 漸進的 統一方法論을 発見하여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相異한 價值體系를 가진 異質社會를 하나의 民族社會로 統合한다는 것은 單一民族으로서의 유구한 역사, 言語, 文化 등 統合要因이 많이 있다 손치드라도 異質的 요소로 인한 分裂的 要素는 그대로 現實이기 때문에 民族統合이나 統一은 단순한

註28) Karl W. Deutsch, *op.cit.* pp. 1-5

数学的 觀念으로만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15宣言」은 南北간의 「善意的 競争」을 主張하여 먼저 「있는 現實」에서 부터 상호 平和를 유지하자는 것이며, 「유엔」에서의 同時參席을 통하여 國際的 保障下에 平和維持方法을 강구하자고 하여 「平和의 방법」을 통한 民族統一을 辯証法的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²⁹⁾

「8.15宣言」후 南北關係는 赤十字會談을 통하여 「大衆的 次元의 接近方法」을 모색하였고 드디어 「7.4聲明」으로 「自主」 「平和」 「民族團合」이라는 統一의 三大原則에 合意하므로 民族史에 있어 劃期的인 民族的次元의 統一接近에 이루어져 「政治的 次元의 接近方法」을 모색하여 民族的 統一論議를 하게 되었으며 「6.23 外交宣言」으로 民族的次元의 統一論議를 國際적으로 定着시 켜려는 方向으로 發展하게 되어 目的論的 論議의 收斂은 可能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脫民族的 現狀打破라는 전통적 固定觀念과 民族觀에 대한 理念解釈 그리고 統一原則의 실천적 諸過程에서의 戰略的 差異때문에 실질적인 收斂 可能性은 많은 難題를 안고 있다.

너우기 統一 또는 統合이라는 目的論보다 過程論的 論議의 方向에 따라 統一後의 政治的 社会的 諸價值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未來的 體制形成때문에 아직도 戰略上으로는 명백히 脫民族的 水準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現象은 南北對話過程에서 南北간에 「南北社會完全開放」 對 「軍事問題優先解決」과 「秋夕省墓 상호訪問

註29) 李廷植, 「國土統一과 民族意識」 韓半島 2号 1971年 4月号 30-33面 參照

團交換」 「法律的条件, 社会的環境改善」이라는 과정적 마찰에서
立証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統一論議에 있어서 歷史性에
입각한 民族的統合理論을 再定立해야 할 것이며 過程的問題도 단력
성있는 階序性を 設定하여 『自我는 自我안에 非我를 定立한다』³⁰⁾
는 原理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앞의 自我는 「理論的」관계며 뒤
의 自我는 「實踐的」관계이므로 「理論的」은 「目的論的」이요
「實踐的」은 「過程論的」이라는 관점에서 民族統一이라는 自我속
에서 統一의 方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南北韓의 統一原則은 상당히 現實化하고 있으며, 이
現實化의 方向은 産業社會觀에 基礎하고 있는 収斂理論을 民族統一
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련의 熱核物理學者인 「사하로프」(Saha-
lov)가 주장한 収斂理論 4 段階中 第1 段階에는 이미 接近하였다고
보여진다.³¹⁾ 그러나 現實的 統一接近은 統一의 밝은 側面에 속
하나 収斂理論에서도 抽出할 수 있듯이 獨逸처럼 能率社會가 維持
되지 못한다면 統一論議의 安定性은 깨어지고 脫民族的統一戰略에
의한 現狀打破의 戰術이 行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히 認識하여
야 할 것이다.

註 30) 崔文煥 著, 民族主義의 展開過程. 博英社 1958, 290 面

註 31) 岡崎久彦 著, 緊張緩和外交 日本國際問題研究所 昭和46年, 126 面 參照

四. 南北体制의 収斂可能性

가. 政治体制과 民族主義

政治体制(political System)을 概念規定한다는 것은 그 범위와 내용이 包括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表現하거는 어렵다. 종래 흔히 「政府形態의 分類」 또는 「國家形態의 分類」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였으나 이것은 政府活動이나 國家現象과 같은 좁은 범위의 政治現象만을 考察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政治体制을 分類하는 데는 모든 現象과 活動의 全体를 對象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分類的 개념의 設定도 그만큼 문제점이 많은 것이다.

「알몬드」(Gabriel A. Almond)의 定義를 빌린다면 政治体制은 「聯関되는 諸構成單位의 全体(totality) 즉 諸構成單位의 相互作用과 이러한 構成單位의 相互作用의 安定性 사이에 있는 相互依存性」³²⁾이라 개념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政治体制은 ①行動(action)의 體系로 ②구성單位는 역할(role)로³³⁾ ③政治行動에 대한 定向(Orientation)으로 ④物質的 強제의 正統적인 独占 등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政治体制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一制度에 強調를 들 것이 아니라 여러 種類의 制度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活動으로서의 政治現象」³⁴⁾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 活動으로서의 政治現象은 무엇에 의하여 拘束받고 있으며 또 產出(Output)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물론 政治体制을 구성

註32) 尹天柱·禹炳奎·李廷禧 編『政治行動의 基礎理論—初編』1960, 280面 參照

註33) David Easton Political System N.Y. Alfred Knopf 1953.

註34) Ibid. P.192

하고 있는 많은 要因이 있겠으나 이 要因 가운데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人間生活 또는 文化에 관한 組織的 体系 내지 同等한 實體와 같은 것이어서 哲學 혹은 社會理論과도 같은 것」³⁵⁾ 이어서 體制의 價值와 信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體制를 民主主義體制,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가진 體制를 共產主義體制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라는 虛構에 의하여 개념화된 通則化的 結果라고 할 것이며 이것을 「밖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는 目標的 體制」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의 政治體制란 여러가지 組織原則의 歷史的 混合體이며, 體制 속에는 언제나 서로 對立하는 여러 異質的인 原則 要素들이 共存하기 마련인 것이다. 예컨대 소련과 中共이 共產 「이데올로기」에 充實하다고 하지만 이미 理念紛爭이 提起된 이후부터는 本質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깊은 간격이 있으며 또 政治體制의 組織面에서도 中共의 文化革命 이후 内部的으로는 많은 變化를 가져왔으며 소련에 있어서도 「후루시체프」時代 이래 많은 變질을 가져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美國과 英國이 다같이 民主主義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民主體制라고 하지만 組織과 機能面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美國과 英國은 政治組織과 運營에 있어 다같이 民主方式을 採하나 美國은 少數派의 權利를 보장하는 여러 制度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英國은 多數決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原則으로 되어 있으며 資本主義운영도 私有財産의 保障이나 契約自由의 原則이 필수적인 條件이지만 英國의 경우 主要産業의 國有化 社會保障에 관한

註35) Paul E. Sigmund, (ed) The Ideologies of the Developing nations 2th(ed) Praeger Publisher 1967, P.3

어떠한 制度의 시행도 그와 兩立될수 없는 要素들이 배합되어 있으며, 共產主義體制의 國家에서도 「라스」主義의 基本原理와 양립되기 어려운 「리베르만」(Lieberman) 理論, 「쿠닌」(Kunin) 經營改竊論, 競爭社會主義, 市場定着的 社會主義이론등 資本主義要素가 混合되어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産業社會觀에 입각한 收斂理論(Convergence)이 擡頭하게 되었다³⁶⁾.

그러나 美國과 英國이 民主主義「이메울로거」의 모든 條件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非民主體制의 國家라고 하지 않으며 소련, 東歐가 資本主義「이메울로거」의 要素가 加味되었다고 해서 資本主義體制의 國家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操作的 定義(operational definition)³⁷⁾에 의하여 얻는 概念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南北韓의 政治體制는 어떠한 「이메울로거」에 입각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外來的 「이메울로거」優先에 의한 政治體制라고 말할 수 있다 하겠다.

「이메울로거」優先에 의한 政治體制는 「民族統一」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것은 民族의 名譽, 民族의 利益, 民族의 使命을 강조한 組織的 行動原理에 입각하고 있는 民族主義와는 간격이 있는 것이다.

「B. 셰퍼」(Boyd G. Shafer)에 의하면 民族主義의 要素로서 5가지를 들었는데 ①공통된 鄉土, 種族, 言語 또는 역사적 文化에 대한 사랑 ②民族의 政治的 獨立과 安定, 그리고 國威伸양에 대한 欲望 ③民族이라는 막연한 그러나 때로는 超自然的인 사회적 有機體에

註 36) 岡崎久彦著, 前掲書 參照

註 37) 金河電, 韓培浩共著, 政治學 日新社 1973, 62~67 面

대한 신비로운 獻身 ④國家자체를 目的視함과 아울러 個人은 오직 國家만을 위하여 存在한다는 독단 ⑤자기나라는 世界에 절대하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보다 優越해야 하며 이 目的을 위하여 공격적 行動을 取해야 한다는 素性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³⁸⁾.

그렇다면 民族主義라는 民族的 차원에서의「民族國家保存」과「民族國家形成」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며,「統合」이라는 課題는「民族利益, 民族使命, 民族名譽」라는 民族史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普遍的「이데올로기」의 體制보다 民族主義的 體制가 가장 優先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民族主義는 民族自決權이라는 自由, 平等 그리고 自己決定權이 주어져 있으며, 民族國家가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平等한 權利를 保障할 수 있는 主權的 平等이 前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民主主義的」이어야 한다는 原理가 성립되고 있다³⁹⁾.

그러므로「民族統一」을 위해서는「이데올로기」體制의 包越로 民族主義具現의 政治體制的 國家가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나. 南北韓體制와「이데올로기」性

南北韓體制의「이데올로기」性은 解放에서 부터 시작한다. 소위「前進基他」로서의 소련의 對外政策이 韓半島에 적용되면서 점차 共產主義者들의 統制區域으로서의 北韓의 性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밖으로 부터는 獨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韓國에서도「소비에트」政策은 그 나라의 소련 統制部分에 衛星國을 確立하고

註 38) Boyd E. Shafer, Nationalism Myth and Reality, N.Y. Harcourt, and Brace Co. 1955, pp.7 - 8.

註 39) 板垣興一著, アジアの民族主義と經濟發展, 東京東洋經濟新報社 刊 1962, 34面

그 傀儡國家를 그 나라의 殘余部分에 대한 支配權 확립을 위한 作戰基他로서 利用』하였고⁴⁰⁾. 안으로 부터는 소위 「民主基他論의 前衛隊인 脫民族勢力이 國際勢力의 支援下에 民族勢力을 구축하고 全体主義的 政治文化』를 強制的으로 移入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에 金日成은 「民主基他의 強化는 組國統一의 결정적 担保이다. 民主基他강화에 대한 口號는 우리 組國이 統一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⁴¹⁾ 로 하여 「맑스-레닌」主義에 입각한 강력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政治体制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北韓은 「人民이 爭取한 偉대한 政治的 勝利」를 「法的으로 確保」한 소위 憲法은 바로 「民主基他」강화에 입각한 「人民民主主義的 國家形態」를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社會主義국가」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共產主義의 主導勢力으로서 「先進的階級인 勞動者階級을 ……」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黨에 의한 國家統制」의 支配方式을 취하고 있는 北韓은 「鋼鐵같이 統一되고 團結된 「레닌」的인 黨」⁴²⁾ 으로서의 勞動黨은 超憲法的인 權力을 行使하여 公式的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單一獨裁政黨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46년 8월 10일자 「重要產業 國有化 法令」을 公布하여 生産시설 및 信用機關을 직접 장악하여 統制經濟의 基般을 구축하였고 國有化政策으로 都市民은 共產黨 統制下의 「職場」로

註 40) Fredrick C. Barghoorn, The U. S. S. R: Monolithic Controls at Home and Abroad, Sigmund Neumann (ed) Modern Political Parties, The Uni of ro Chicago Press 1956, p.281

註 41) 김일희, "祖國의 平和的統一에 대한 우리黨의 方針" 理論과 實踐, 平壤 國立出版社 1962, 263面

註 42) 金日成은 1961年 9月 11日字 勞動黨 第4次黨大會에서 한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에서 이렇게 表現했다. 同報告書 120面

로 組織化되어 강력한 統制經濟體制을 구축하여 全住民을 共産黨의 專斷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新憲法에도 黨을 指導하고 있는 主席을 「國家의 首班·國家 主權의 代表」(89條)로 규정하여 黨에 의한 一元的인 「國家」指導를 明白히 하고 있어 「레닌」이 「國家와 革命」속에서 國家를 「武裝한 사람들의 組織體」⁴³⁾라고 지적한 것은 이를 잘 立証해 주고 있다.

韓國도 역시 解放과 同時 自由民主主義 「이데올로기」를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여 民主主義 實質 즉 政治權力의 社會的, 經濟的 基盤의 擴張을 도모하지 못하고 다만 形式만을 행하고 있었다⁴⁴⁾.

그러나 國家의 單一的 統制點이 없는 多樣화된 政治體制인 自由民主主義는 統治의 實質을 의미하는 「憲法」에 의하여 支配方式을 찾고 있는 韓國은 「自由民主主義의 基本秩序를 더욱 公認히 하는」 「民主共和國를 건설함에 있어」라는 民主的 基本秩序를 前文에 明白히 규정 하였고 三權分立과 自由經濟體制을 규정하여 自由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를 실천한 것을 밝혔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北韓은 強固한 共産 「이데올로기」의 體制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이데올로기」에 의한 統治方式을 취하고 있다.

南北간의 現體制을 「아이젠스타트」(S. N. Eisenstadt)나 「실즈」(Edward Shils)의 分類概念에 따르면 분명히 韓國은 民主主義體制에 屬하고 있으며 北韓은 全體主義體制에 속하고 있다. 또 알몬드가 政治文化의

註 43) 朴東雲著, 北韓統治機構論·高大亞研 1970, 183面

註 44) Eugene Staley, The Fu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1954.
申一澈訳, 後進國의 將來 正向社 1961, P.202.

註 45) S.N. Eisenstadt, The Political System of Empire,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3, pp.8 - 11

類型에 따라 分類한 體制에 代入한다면 韓國은 産業化의 政治體制에 屬하나 役割 分化의 擴大와 政治文化의 水平 그리고 産業化의 促進 등으로 「앙글로-아메리카」 政治體制에 接近하고 있으며 北韓은 明白히 全体主義 政治體制型에 속한다 하겠다⁴⁶⁾.

이러한 全体主義型에 屬하는 國家는 일반적으로 ①公式的 「이메울로기」 ②指導者, 偶像化 ③ 單一黨制를 採択하고 있으며 政治文化는 ①強 制的 役割 ②機能上 不安定 ③同質性의 人造性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바 北韓은 本質적으로 「맑스·레닌」의 「이메울로기」에 입각하여, 이 「이메울로기」를 구현하는 具體的人物로 金日成을 偶像化하고 있으며, 이를 民衆에게 宣傳注入하고 「이메울로기」의 目標에 動員 하기 위한 基幹組織인 「勞動黨」의 一黨制 — 물론 友黨인 複數政黨 制를 형식상 택하고 있다 — 를 형성하고 있어 어느 體制보다 「이메 울로기」성이 훨씬 강한 立場에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北韓憲法도 강력한 「이메울로기」 性을 나타내고 있어 北韓憲法은 前文의 規定도 없이 黨의 綱領 에 따른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黨」이 라는 絶對개념 (실질개념) 과 「憲法」이라는 形式개념 (下位개념) 으 로 파악한다면 더욱 뚜렷하다 하겠다.

그러나 실질개념과 形式개념을 同時에 包含하고 있는 韓國헌법은 「憲法」前文에서 國民의 決定的 意思와 憲法法規의 規範性의 기초 가 되는 根本的인 政治的 決斷⁴⁷⁾을 明示한 前文에서는 「유구한 歷史와 전통에 빛나는」 「3.1 운동의 崇高한 獨立精神」 「4.19 義舉 및 5.16 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①民族史觀에

註 46) G.A Almond,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in Political Behavior by H. Balau 1956, pp. 34 - 42

註 47) 韓相範著, 韓國憲法 普文閣 1965, 22 面

입각한 歷史性 ②民族主義이념 ③民主主義이념 ④民族主体性확립 등의 政治的 決斷을 明示하여 역사성과 民族性에 입각한 民族主義와 民主主義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民族」이라는 正統的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데올로기」성이 弱한 立場을 취하고 있어 韓國은 理念과 脫理念의 衝突을 일으키고 있다 하겠다.

「民族統一」이라는 觀點에서 南北體制를 比較한다면 먼저 北韓은 強固한 「이데올로기」성에서 부터 脫皮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韓國은 將來指向的 觀點에서 現在 衝突되고 있는 개념부터 서서히 超克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能力比較를 「黨」이라는 측면에서 究明해 보기로 하겠다.

다. 南北韓體制와 能力比較

南北韓體制의 特性들을 比較하기 위하여 먼저 共通된 構造的 變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黨」이라는 政治的 權能의 수행을 南北韓의 政治現狀에 代入시켜 ①正統性패턴 ②機能範圍 ③政策決定構造 ④目標達成패턴등을 標準的 項目으로 삼아 能力을 比較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이를 위하여 政黨의 機能的 特性부터 分析해 보겠다. 「G.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政黨을 ①一政黨體制(one party) ②「헤게모니」政黨(Hegemonic-party) ③支配的政黨兩黨(Predominant-party) ④兩黨(Two-party) ⑤온건한 多數黨制(Moderate Multipartism) ⑥과격한 多數黨制(Extreme Multipartism) ⑦微分化된 政黨(Atomized Party)으로 分類하여 從來의

一党制개념을 修正하여 「支配的政党」개념을 導入하였다⁴⁸⁾ 이 分類方式에 의하면 北韓의 一党体制은 ①과 ②를 混合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으며 表面上「朝民党」「青年青友党」등은 있지만 아무런 競合能力이 없는 労働党的 完全從屬의 政党인 것이다. 그러므로 労働党은 「君臨하는 党」으로 存在하고 있다.

한편 韓國의 政党은 数字만 基準으로 한다면 多数党体制의 類型에 속한다 하겠으나 相對的 權力的 分配를 감안하면 「支配的 政党」体制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사르토리」에 의하면 이 類型의 政党体制은 執權黨 이외의 政党이 「合法的」인 執權 競爭者로서 存在하지만 現實적으로 競爭의 可能性이 弱한 狀態에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政党体制의 가장 큰 差異點은 北韓은 政權交替가 完全不可能한 一党獨裁下에 있다는 사실이며 反面에 韓國은 政權交替의 可能性이 완전히 「排除되지 않는」狀態下에서 運營되어 왔으며 그런 의미에서 廣義의 複數競爭集團의 性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南北韓의 正統性 패턴부터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래 政党의 政治的 機能은 公職担当者의 選출, 政策의 立案 政府構成, 政權획득을 위한 挑戰과 競合 그리고 政治的 教育등에 두고 있으나 北韓의 「労働黨」은 이 모든 機能을 獨占하고 있어 法的으로나 現實적으로나 政權競爭者의 存在를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労働黨은 「唯一한 合法的 權威」를 主張하고 北韓政權의 唯一한 權力手段으로 公認받고 있다.

労働黨前文에 의하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原理를 朝鮮革命

註 48) Giovanni Sartori, "Typology of Party System" in Erik Allardt and Stein Rokkan (ed) Mass Politics, N.S. Free Press 1970, pp. 311 - 352

의 實踐活動에 創造的으로 적용하며⁴⁹⁾ 라고 규정하여 強力한 「이메울로기」로 武装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또 党的 公式文獻은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原理를 우리나라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하여 朝鮮革命을 勝利에로 이끈 金日成同志를 위시한 朝鮮共產主義者들의 主体思想과 自力更生의 革命精信을 培養」운운하여⁵⁰⁾ 金日成 一人體制와 金日成偶像化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또한 全体主義體制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金日成과 公式的 「이메울로기」를 北韓住民에게 宣傳, 注入하며 動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黨」의 役割은 강조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韓國의 正統性 「패턴」은 北韓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바탕위에 基礎를 두고 있다. 北韓의 政治體制가 全体主義體制 特性에 基礎한 感情的 一體感和 意識的인 獻身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韓國의 경우는 「法律과 習慣」의 配合 또는 調和를 政體合法性의 基礎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韓國에서는 憲法이나 法律이 國民의 參與나 代表의 討議를 통하여 政治指導層의 選出方法이나 政策決定方法을 規定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傳統的인 習慣이나 規範과 外來的인 現代式 法規나 이의 간격이 격심하기 때문에 韓國體制의 正統性 「패턴」은 法規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弱한 실정이다. 오히려 兩者사이의 葛藤과 衝突이 解消되지 못한채 不安定한 基般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다음 政治化의 水準을 比較해 보면 全体主義 국가의 共通的 特性이기도 하지만 北韓體制의 政治水準은 高度로 발달되어 있으나 그

註 49) 朴東雲著, 前揭書, 107 面

註 50) 上揭書, 108 面

것이 遂行하는 政治的 機能은 「無制限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執政黨인 「朝鮮勞動黨」과 다른 團體나 組織體사이에는 社會的 機能에 관한 어떠한 責任分担도 없고 오직 「피라미」式 統治體制속 에 帰屬되어 있다. 그렇다고 北韓體制內的 分化度나 專門化水準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專門化水準도 政治的水準만큼 높은수 도 있다. 이처럼 높은 水準의 專門化에서 오는 多樣한 役割이나 專門的 機能들을 統合하고 調整하는 作業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黨이 이 機能을 도맡고 있으나 이 때문에 생기는 葛藤이나 非能率 化 등의 문제는 共產體制가 안고 있는 本質的인 制約이기도 하다. 특히 「技術者와 黨僚사이의 葛藤은 이러한 體制的結合을 그대로 反映한 것이다. 그러나 反面 韓國體制의 경우는 政治體制와 社會 體制사이의 境界는 明白하다. 社會統合에 대한 全的인 責任을 지고 있는 勞動黨이 社會體制全域에 침투하여 「政治化」作業을 통해 統合 을 造成維持하고 있는데 反하여 韓國은 社會統合의 機能은 「自然的 인 過程」에 의존해야 하며 政黨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政治統合에 가장 重要하다 할 民族主義나 혁명적「이데올로기」가 卷 入되어 있는 韓國體制에 있어서 政黨들은 與野를 막론하고 自己들 의 權力維持에나 汲汲할 따름이다. 政黨의 統合的 機能은 찾아 볼 수 없다⁵¹⁾.

세계 政策決定의 構造를 보면 다른 全体主義國家처럼 北韓體制의 特徵은 政治的 役割들이 高度로 重疊되고 있고 또 分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勞動黨은 社會各界各層에 침투하여 政治的으로 統合된 構造 를 이룩해 놓았다. 勞動黨은 黨과 政府機關사이의 調整을 도맡아

註51) Y.C. H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Pacific Affairs Vol, XIII, No. 4 Winter 1969 ~ 70 PP. 446 ~ 464.

少數의 最高決定層이 中共委員會와 그 속의 黨中央政治委員會의 指示를 執行한다. 勞動黨規約41條에 의하면 黨中央委員會의 權限은 『黨大會와 黨大會사이에서 全體黨事業을 指導하며 黨大會의 決定에 基礎하여 黨의 政策을 수립하고 그 執行을 組織하며 黨의 各種機關을 設置하고 그 活動을 指導하며 幹部들을 配置 및 育成하며 國家 經濟 文化機關들과 社會團體들을 指導하며 其他政黨 및 團體들과의 關係에 있어서 黨을 代表하며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⁵²⁾고 규정해 놓고 있다. 中央委를 政治體制의 中枢神經으로 하고 地方黨中央委員會를 政策決定 政策決定遂行의 「벨트」帶로 삼는 統制網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이번 修正憲法에 규정된 最高指導機關으로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修正憲法 7章)하여 黨政治委員들을 委員으로 登用하여 黨과 國家는 完全一致된 統制體制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러한 統制體制를 「民主主義中央集權制」라고 表現하고 있다⁵³⁾.

한편 이에 비하여 韓國은 政治 文化 형태가 아직도 완전히 産業化 前 政治體制의 役割 데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半競爭的(Semi-competitive) 政治體系⁵⁴⁾의 範疇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政策決定패턴의 問題는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目標達成의 패턴을 보면 北韓은 「革命的」이라 하겠다. 北韓體制가 지금까지 追求해 온 基本目標은 소위 「自主적인 社會主義國家 건설」(北韓 憲法 11條)과 「南朝鮮解放」이라는 강력한 「이메올로기」로 武裝되어 있다. 이 基本目標達成을 위하여 北韓指導層은 北

註 52) 朴東雲著, 前掲書 127面.

註 53) 朝鮮勞動黨規約 第17條는: "黨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의하여 組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朴東雲著, 前掲書 114面 參照

註 54) G.A. Almond and J.S. Coleman(ed)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Uni, Press 1960, Conclusion.

韓住民을 철저히 動員하여 오고 있다 金日成의「唯一思想」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은 北韓은 소위「革命的民主基他」로 완전 要塞化하기 위하여「大衆의 利益을 위하여 鬭爭」한다는「群衆觀點」⁵⁵⁾ 政策을 수행해 왔으며, 이것은 곧「南朝鮮의 解放」과「全國的 범위의 共產主義 건설」이라는 對外的 革命目標과 밀접한 關係하에 追求하고 있다.

韓國의 目標達成패턴은 비교적「目的的」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이라는 表現은 아직도 現狀을 維持하려는 要素와 目的 設定에 따른 現狀變化라는 要素가 配合되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즉 「組國의 平和統一」과「國力培養」이라는 목표와「社會安定」이라는 側面에서의 不均衡的 保守경향이 併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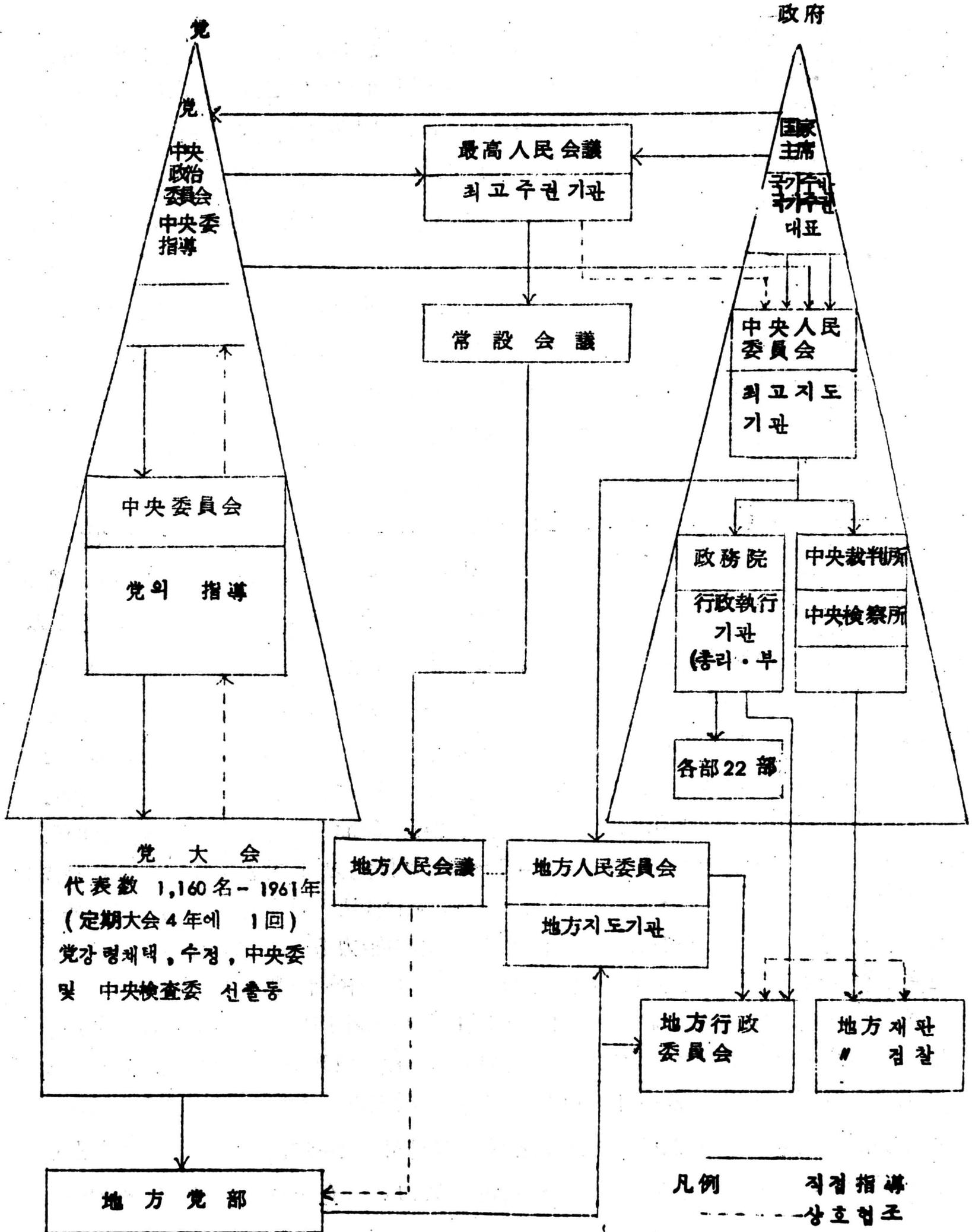
이러한 몇가지의 패턴에서 南北韓의 能力을 比較해 보았다. 이를 體制生存能力이라는 觀點에서 綜合하여 본다면 北韓은 韓國보다 훨씬 有利한 위치에 있다. 勞動黨의 強力한 支配體制로 인하여 共產化作業의 障礙가 되는 과거의 制度나 習慣은 완전히 뿌리뽑아 除去해 버렸다. 勞動黨의 또 하나의 機能은 소위 金日成의 唯一思想을 全住民 특히 學生들에게 注入하여 소위 教育을 통한 政治社會化活動(Political Socialization)을 進行해 왔고 지금도 강력히 進行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은 産業化 以前 政治文化의 範疇와 半競爭的 政治體系의 初期段階라는 觀點에서 보면 아직도 體制維持能力에 많은 問題점이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때 南北體制는 다같이「民族統一」이라는 觀點에서 相對的인 脆弱點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南北이 다같이 體制能力을 增強시켜 온 것은 상호간의 對抗意識에서 發端한것이며 理想과 現實 사이에 葛藤과 衝突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北韓과 같이 강력한「이데올로기」와 진정한「民族統一」이라는 民族的 차원 그리고 現實的 戰略간의 間격을 順理로 해결할 能力이 없는 反面에 韓國은「民族統一」이라는 차원과 現實的 정치力量의 개발간에는 相互連關的 상태에 있으며 國民意志의 현실적 參與가 可能하기 때문에 北韓體制를 능가할 수 있는 潛在的 底力은 存在하고 있다 하겠다.

註55) 朴東雲著, 前掲書 187面

北韓의 權力体系圖



라. 南北韓體制와 收斂可能性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南北韓의 政治體制는 분명히 異質的인 「이데올로기」體制인 것이다. 北韓의 강력한 「맑스-레닌」主義的 共產體制는 「民族」 「自主」라는 用語를 「스탈린」的 民族觀과 「金日成」的 「自主觀」에 입각하여 相對體制否認이라는 前提下에 生存能力을 維持, 伸張하고 있으며 反面 韓國은 土着化되지 못한 自由民主主義體制를 維持해 가면서 「民族」 「自主」 「主体性」 등 民族的 正統性에 입각한 用語를 驅使하면서 「이데올로기」維持라는 측면과 民族主義라는 측면의 葛藤관계속에서 生存能力을 維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體制上의 接近性은 發見할 수 없으며 民族國家의 保存이라는 측면은 상당히 脆弱하다 하겠다.

그러나 民族統合의 變數인 歷史的, 文化的, 種族的, 言語的, 地域的 그리고 前의 統合經驗등이 뿌리깊게 潛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統合」이라는 民族史的 使命感이 前提된다면 體制上의 脫 「이데올로기」는 점진적으로 促進될 수 있다 하겠다.

앞에서도 分析한 바와같이 民族國家형성이라는 측면과 民族國家保存이라는 始源的 使命이 있다면 形式이나마 民族主義體制를 형성하여 점차 統一의 接近方法을 發見하는 段階性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國土分斷의 國內外的 환경 要因이 「民族統合」의 前例에 屬하는 일이므로 體制上의 완전 接近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體制를 接近시키는 방향에서 적어도 民族的 차원에서 形式과 實質의 문제를 모색하는 基本姿勢가 더욱 요청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統合의 개념을 構造的 凝集性 (Structural Cohensiveness) 에 정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機能主義者인 「하스」

(Ernst Haas)가 지적한 「機能部門統合의 拡大理論」(The expansive logic of sector integration)⁵⁶⁾을 적용하여 「밀로부터」의 統合段階를 設定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다 하겠다.

이미 「도이취」도 假說設定했듯이 『國民的 團結性에 관한 意識은 共同의 勝利나 敗北. 또는 共同의 勝利의 기쁨이나 共同의 슬픔등에서 産出되어지거나 強化되어지는 것』⁵⁷⁾이라는 確狀的 補強 「메카니즘」이 諸歷史性, 諸文化性등 統一問題 以前의 同質的 要素가 内心에 깊게 潛在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民族統合」이라는 民族의 最終的인 價值⁵⁸⁾에서 國家目標를 수립하여 政策過程에 反映한다면 機能統合의 接近性은 尙장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밀로부터의」 民族統合의 可能性은 潛在化되어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統治者的 民族主義가 現顯될 때는 즉시 強고한 基礎를 가지고 體制接近을 모색할 수 있다는 前提性은 尙상 活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要請되는 것은 北韓의 조속한 脫「이데올로기」性이다. 強力한 「이데올로기」體制로 「이데올로기」的 統一目標를 세워놓고 「이데올로기」的 統一戰略을 戰術化한다는 것은 「民族統合」의 巨大한 否定的 要素이며 진정한 「民族統一」이나

56) Ernst Haas, Beyond the Nation 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Uni, Press 1954

57) Kart W. Dethop "Communication Theory and Political Integration Philip E Jacob and James V. Toscano, (ed)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G.A. Lippincott Co, 1964, p. 55

58) 崔昌圭, "民族的인 統一目標 北韓 72年 5月号 61~62面

「統合」이 아닌 沒民族的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體制接近에 있어서 感傷的 民族統合論이나 「이데올로기」的 民族理論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形式理論 방식이든 實質接近方式이든 역사적 사회적 성격과 具體的 실천적 性格을 가진 民族主義의 體制代置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하로프」의 収歛段階에 의하면 北韓도 平和共存정책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統一方式을 내세우고 있어 역시 一段階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⁹⁾.

59) 収歛理論과 平和共存에 관하여 収歛理論의 支持者들은 平和共存을 収歛의 肯定的 動機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며 反對者들은 収歛理論과 平和共存과는 전혀 關係가 없다는 否定的 反應을 나타내기도 한다.

五. 結 論

(收斂方式에 의한 統一方案)

가. 統一基盤造成으로서의 收斂理論

五. 結論(收斂方式에 의한 統一方案)

單一經濟 및 社會體制의 融合, 統一 過程을 위한 現實의 要求

抽象的인 概念을 그 內涵을 分析하고 統一에 關한 理論을

「民族統合」에 關한 理論을 提議하는 問題가 提起되자

수 있다. 收斂理論의 提議는 工業社會를 前提로 한

이기 때문에 開發途上의 南北韓의 現實情에서는 더욱 適用

難難한 問題가 提起되자 말을 수 없다.

이러한 理論이 提示하는 核心은 첫째, 工業化過程이건 體制變遷

에 關한 技術과 管理層의 脫「이데올로기」의 必要

를 提議하는 點에 在한다. 둘째, 工業社會를 前提로 한 閉鎖社會

의 開放을 提議하는 點에 在한다. 셋째, 福利社會에 對한 「도그마」의 提議

를 提議하는 點에 在한다. 넷째, 工業社會의 發展을 위한 經濟

法制의 人心의 變遷을 提議하는 點에 在한다. 다섯째, 工業社會의

發展을 위한 經濟理論을 提議하는 點에 在한다. 여섯째, 工業社會의

發展을 위한 政治理論을 提議하는 點에 在한다.

참고문헌: 1. 김대중, 「한국경제의 통일과 개발」, 『한국경제』 1972. 11. 24호

1972. 11. 24호

五. 結 論

(收斂方式에 의한 統一方案)

가. 統一基盤造成으로서의 收斂理論

既存 收斂理論이란 兩体制에 있어서 類似点的 增大, 相互接近, 單一經濟 및 社会体制로의 融合, 轉化 등을 향한 現象이라는 極히 抽象的인 概念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狀態를 「民族統合」에 適用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收斂理論의 基盤은 高度화된 産業社会를 前提로 한 것이기 때문에 開發途上에 있는 南北韓의 現實情에서는 더욱 適用可能性與否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同理論이 提示하는 核心은 첫째, 工業化過程이건 体制差異에 관계없이 生産手段의 技術과 管理層의 脫「이데올로기」경향에 서게 되고, 둘째 經濟活動의 效率化를 위해선 閉鎖社会도 그 開放이 不可避하다는 것, 셋째 豊요한 福祉社会에선 「도그마」的인 世界觀의 變化가 일어난다는 것, 넷째 異質体制간의 交流에선 優越한 体制로의 人心의 變化가 기운다는 것 등이고 보면 他意에 의한 民族分裂의 超克을 위해 同理論을 適用試圖해 보려고 하는 것도 전혀 不當하지는 않다 하겠다. 60)

註 60) 国土統一院, “韓半島의 統一基盤造成으로서의 集中理論의 適用可能性與否”
1972. 11. 64面

물론 同理論의 否定論者⁶¹⁾ 들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와의 體制差異를 經視했다하여 資本主義體制維持와 아울러 社會主義의 沒落을 중용하는 不條理한 理論이라고 論駁하지만 戰後世界의 變化樣相을 보면 全面 否定할 수 없는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2次 大戰後 20여 년간에 있었던 東西國家群의 體制的 變化는 同理論이 적용되었든 아니되었든 간에 産業社會의 途程에서 일어난 兩經濟體制간의 非中央集權化라는 중요한 點에서 또 價格形成過程에 있어서 어느 정도 收斂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事實에서 볼 적에 同理論이 제시하는 未來社會에 대한 假設이 非論理的인 것은 아니라 하겠다.

初期 收斂理論이 전개 되었을 때 分斷國이 앞서 收斂理論을 깊게 研究하여야 할 處地에 있었지만 60年代만 하더라도 分斷國은 다같이 兩體制간의 共存과 交流를 통한 統一接近이 아니라 오히려 相對方의 體制를 否定하는 緊張的體制維持下에 있었기 때문에 吸收統合을 原則으로 하는 當時에서는 오직 政策的인 適用可能性에만 關心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收斂理論이 共產圈 國家에 대한 보다 좋은 對決思想이라는 것이 判明되어 점차 西獨에서는 社會科學的, 政治的 言論은 收斂理論的 方向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西獨의 言論도 『分斷된 兩獨 사이에도 産業國家的 그리고 産業社會的인 發達이 進行되어서 比較的 類似的한 法則性이 支配하게 되었고 社會體制가 어떠한 것이든간에 어떤 確定된 그러므로서

註61) 收斂理論의 否定論者 代제로 共產圈의 學者들로서

- ① Gunter Rose, Konvergenztheorie - ein neuer Mythos der alter Welt: In Zeitschrift für Geschichte Wissenschaft, Ost Berlin Heft, 1, 1967
- ② H. Meinsener, Konvergenzdenken von der Wirtschaft Bedrängt In Einheit Heft 12, 1971
- ③ 岡崎久彦 著, 前掲書 111~124面 参照

比較的 類似한 容觀的인 反應이 要求되기에 이르렀다」⁶²⁾ 라고 하였다.

收斂理論은 接近과 交流를 통하여 體制간의 異質性을 解消 할 수 있고 또 弱勢體制가 優秀體制에로 收斂될 수 있다는 假說이 獨逸政治學자와 지금의 政治人들에게 수긍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收斂理論이 産業社會에로의 接近과 體制肯定의 土台위에 있다면 우리도 「民族統一」에 있어 하나의 基盤造成을 위한 理論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南北對話를 한다는 것은 이미 共存의 바탕위에 長期的인 統一目標達成이라는 前提가 선 것으로 보아 統一의 具體的인 方法을 찾고 있는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의 水準에서 점차 「위로」擴大 적용하며 相互 自然的인 接近을 통한 現體制의 包越을 試圖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韓이 다같이 「共存」의 바탕 위에 相互能率社會로의 「善意의 競爭」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産業化段階」에서의 統一問題는 「基盤造成으로서의 收斂理論」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음에 틀림 없다. 하겠다. 그러나 收斂理論이 産業社會觀에 底礎하고 있다면 이것은 점진적인 「밑으로 부터」의 接近을 찾는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이보다 「위로 부터」의 形式論理的인 接近可能的인 方法도 南北韓의 諸要因에서 찾아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南北韓은 다같이 「統一以前의統合」의 變數가 깊게 潛在하고 있으며, 적어도 民族史에 대한 不滅의 使命感 즉 「民族國家 保存維持」라는 始源的인 命題가 있기 때문에 國際的環境要因보다

註 62) H. Voigt, *Building für die Zukunft* Vandenhoeck und Ruprecht, Göttingen
1967. SS. 10-12.

「民族保存」이라는 「生存權的 民族保護」의 生理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一接近에 있어 적어도 民族生存이라는 本能的인 要因을 概念化하여 「이데올로기」包越에 투입시켜 「民族主義的 政治體制」라는 單一한 信念體系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상상적인 「民族統一」이 아니라 現分斷線은 國際的 環境 要因으로 分析하고 「이데올로기」性의 現存性을 상호 肯定하면서 이보다 앞선 民族主義信念體系를 수립해야 한다는 原理인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의 收斂方式에 앞서 몇가지 民族生存의 本能的 原理부터 試圖해 보기로 하겠다.

나. 「위의 부터」의 統一方法

「위로 부터」의 接近方式에 의한 統一方案을 수립한다는 것은 比較的 形式論理的인 接近方法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民族統一」에 대한 本質的인 문제에 있어 大原則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比較的 現實性 없는 接近方法인지는 몰라도 「形式이 實質을 支配한다」는 通念에 의하여 적어도 思考體系나 信念體系의 合理的인 基準이 設定되어야 하며 「統一接近의 基本的인 物」로서 確立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理由는 高度의 同質性을 지닌 우리 민족이 強制된 分割에 의하여 전혀 異質的인 두개의 下位體系를 形成하여 이제는 下位體系가 아주 遠心的으로 떨어져 나가 全體로서의 民族共同體의 生存能力에 功獻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두개의 下位體系가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完全히 異質的인 두개의 政治體系가 成立되어 버렸다는 冷酷한 現實에 直面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態가 오래 持續된다면 앞으로 同一民族의 分裂된 信念體

系위에 「民族國家保存」이라는 生存權的 民族保持마저 消滅될 것이
며 그렇게 되면 민족의 將來는 破局을 免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民族主義的 信念體系가 統一方案의 基
底가 되어야 한다는 必然性이 內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分裂의 民族」을 「統合의 民族」으로 統一國家를 형성한 史例가
証明하듯 民族主義의 강열한 意識없이는 統合의 要素를 発見할 수
없는 것이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기 以前에는 三國이 同一한 民族的環境과
意識속에 있으면서도 國家的境界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三國
은 各己 자기나라의 國家統合要因으로 「佛敎思想」을 방편삼아 競
爭的인 文化와 制度로 다른 雙方을 吸收하려 하였고 그 때문에
領土的 葛藤과 衝突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속에는 분명히 民
族同一體의식과 同一文化圈의식이 存在하여 同一한 統合要素를 간직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政治制度도 三國이 다같이 同一한 傳
統的 制度下에 있었기 때문에 制度上的 갈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新羅가 三國을 統一함에 있어 外勢(唐)를 빌렸으나 遼唐의 싸
움에는 全民族이 民族的 統合要素와 文化的 統合要素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抵抗的 民族主義가 民族 國家保存이라는 형태로 나
타났던 것이다.

물론 嚴格한 意味에서 본다면 新羅의 統一이 「民族主義」라는
이론바 「行動指標로서의 民族主義」라고 보기는 어려우나⁶³⁾도 이미

註 63) 國土統一院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統一研修所 刊 1972, 11面 參照

同一民族으로서의 統合意志가 大衆化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上層部로 부터의 統一意志와 下層部の 民族意識은 깊게 潛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部族 意識이 內在되어 있었기 때문에 政治的 權力鬭爭과 결합된 部族意識은 잠시 後三國이라는 分裂의 政治史를 형성하였으나 高麗가 再統一(918年) 하므로써 韓國에는 民族主義가 완전 뿌리를 박고 大衆化 되어 갔던 것이다. 高麗의 創建精神의 基底는 自主精神이며, 自主精神을 具體化하여 民族文化의 統合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64)

이렇게 볼때 民族國家의 保存維持라는 관점에서 民族主義가 반드시 現顯되어야 하며 「이데올로기」의 要素는 점차 消滅되어야 할 것이다. 具體적인 南北狀況은 大原則에 있어 아직도 未洽한 狀態에 있다. 北韓의 民族觀과 民族主義는 民族史觀에 입각한 것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므로 眞正히 民族史觀에 입각한 民族主義로의 回復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의 소위 修正憲法도 그리고 勞動黨의 規約등 形式的인 諸文書의 民族主義로의 回歸가 강력히 要請된다 하겠다.

한편 韓國도 民族史觀의 定立을 위한 끈질긴 努力을 試圖하고 있으면서도 憲法이나 기타 宣言文, 文書등에서는 아직도 民族主義와 「이데올로기」의 要素가 葛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葛藤의 要因을 점차 修正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韓國的 民族主義의 信念體系가 수립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形式論理上의 接近과 同質性이라도 確保하여 「民族國家保存」이라는 民族史의源泉을 定立해 놓아야 民族國家의 形成 問題를

64) 上揭書 12面

論議하는 小前提가 성립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民族 國家形成이라는 「民族統一」의 實質的接近方法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다. 「밀으로부터」의 統一方法

「밀으로부터」라는 말은 民族主義를 어떻게 하면 「統一」이라는 實質問題에 적용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方法論인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앞에서 「民族國家保存」이라는 大前提가 成立되었다면 「分裂된 現狀」을 어떻게 하면 「統一로 接合」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形式論理的次元에 實踐을 위한 實質論理와 展開인 것이다. 「統一」이라는 當爲性的의 實踐은 統合主体로서의 民族問題와 分裂現狀이라는 國際問題가 다같이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統合의 論理」로서의 民族은 어떠한 方向에서 統一方法을 求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民族史觀에 입각한 「自主 平和 . 民族大團結」이라는 平和的自主統一을 希求하고 있다. 그러면 또 「分裂의 現狀」으로서의 國際 政治는 어떠한 方法으로 分斷國家의 統合方法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國際環境의 現狀維持와 緊張緩和라는 「現狀」과 「共存」이라는 均衡된 平和論理에 입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으로는 自主 . 平和 . 民族大團結」의 方法이요, 밖으로는 「均衡 . 平和 . 共存」이라는 方法인 것이다. 또 統一의 時機에 관해서는 안으로는 하루 빨리 統一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欲求가 있고 밖으로는 異質體制간의 體制文化로 인한 점진적 統一方法을 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族統一」은 小前提로서의 「自主 . 平和 . 民族大團結」이라는 統一의 三大原則에 立脚하여야 할 것이며, 이三大原則의 接近을 위한 方法은 「對決에서 和解로」라는 辯證法的 發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異質體制간의 이론바 「두 對立物의 對決」이라는 相互否認에 있었다면 民族國家형성을 위해서는 「두對

立物간의 和解」 即 「平和의 名分」에게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 對立物간의 對決」을 止揚하는 길은 먼저 戰爭과 緊張的 競爭을 포기해야 하며, 「戰爭과 緊張的 競爭」을 포기한다면 相互信賴의 바탕위에 內政不干渉과 善意의 競爭을 해야 할 것이며⁶⁵⁾, 「內政不干渉과 善意의 競爭」이 이룩되면 對立物간의 상호認定과 平和共存이 이룩되어야 하며, 여기서 부터 진실한 平和統一의 바탕위에 民族國家형성을 위한 진정한 對話가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統一」을 둘러싸고 있는 國際環境要因 即 統一問題의 長期間에 걸친 外延的狀況을 고려해야 하므로 世界平和定着過程에서 南北이 다 같이 平和定着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는 事實을 確認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認定 내지 保障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平和의 定着」이 南北간에 이룩되면 그때 부터는 可能的 段階에서 부터 交流를 통하여 지금까지 內在化되어 있는 民族文化를 顯在化시키고 「이데올로기」의 文化는 民族文化속에 包越시켜 낳고 理念化한 것을 점차 消滅시키는 段階的 統一接近을 꾀하여 궁극적인 民族國家형성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증법적 段階의 接近方法은 國家的 概念이 아니라 「隨時로 改善되는 動的相關的인 概念」이며, 이에 발맞추어 韓國은 이에 「8.15宣言」, 南北赤十字會談, 7.4 聲明 그리고 「6.23宣言」등을 통하여 民族國家형성의 段階的 方案을 提示하였던 것이다.

「7.4 聲明」은 「民族統一」方法의 小原則에 合意를 보았다는 점에서 劃期的이며 現實的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7.4 聲明」에서

註 65) 이미 朴大統領의 「8.15宣言」에서 善意의 競爭을 提議했고, 「6.23宣言」 第3項에서 內政不干渉의 原則을 提議하였다.

는 南北간의 緊張緩和와 軍事衝突防止에 合意(2項)하여 戰爭과 緊張的 競爭을 포기하였으나 信賴의 바탕을 이룩할 「內政不干渉」과 善意의 競爭과 상호現實의 「인정과 共存」에는 구체적인 言及이 없이 即 緊張緩和와 戰爭을 완전 포기한다는 平和定着의 段階에 관해서는 具體的인 合意가 없이 南北간의 多方面的 諸般交流(3項)에만 合意하여 결국 「原則에 의한 南北對話」만을 추진한 결과 實現性없는 다시 말하면 內政干渉的인 諸先決條件을 제시하는 北韓의 現狀打破的 對話方式을 可能케 하여 平和의 定着에 의한 統一接近方式 即 民族國家형성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6.23 宣言」에서는 비로소 內政不干渉과 國際的保障과 善意의 國際的 競爭을 提議했으나 이미 北韓은 「이데올로기」의 固執과 諸先決條件 고집만을 主張하는 反 「7.4 精神」을 實現한다는 戰略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北韓은 宣傳的, 「이데올로기」的인 行動을 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民族國家形成이라는 民族史的 使命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既存 收斂 理論의 基盤이 되는 産業社會로의 促進을 倍加하여 統一論議의 安定性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国力倍養」의 길이 바로 이런 意味에서 統一方式을 接近시키는 基盤이라 結論지을수 있을 것이다.